

# ■ 차 례 ■

□ 회 순/.....	2
□ 교화단교화 사례발표1/.....	3
허 석 교도: 안암교당 청년교화단 교화	
□ 교화단교화 사례발표2/.....	25
이선조교무: 신림교당 일반교화단 교화	
□ 발표3/.....	35
최정운교무: 교화단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 분석	
□ 발표4/.....	57
장진수교무: 단을 통한 교화활성화 방안(불법연구회 단활동 중심)	
□ 메 모.....	87

# ■ 회 순 ■

1. 개 회

2. 입 정

3. 설명기도

4. 격려사

5. 발 표

- ◆ 사례발표1: 안암교당 청년교회단 교화(허 석교도/안암교당)
- ◆ 사례발표2: 신림교당 일반교회단 교화(이선조교무/신림교당)
- ◆ 발표3: 교회단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분석(최정윤교무/교회연구소)
- ◆ 발표4: 단을 통한 교회단활성화 방안(장진수교무/원불교사상연구원)

6. 마무리 인사

7. 폐 회

# ■ 교화단교화 사례발표1

= 안암교당 청년교화단 교화 =

허 석 교도

▷ 원불교 안암교당



# 안암교당 청년교화단 교화

허 석교도(안암교당)

## < 목 차 >

- I. 공부하는 청년회
  - 1. 정례법회
  - 2. 화요 정전공부방
  - 3. 훈련
  - 4. 교화단회
- II. 교화하는 청년회
  - 1. 단원 불공
  - 2. 인터넷 카페 활용
- III. 복 짓는 청년회
  - 1. 사업단 활동
  - 2. 봉사 활동
- IV. 재미있는 청년회
  - 1. MT / 단 모임
  - 2. 자발적인 다양한 소모임 활동

## ◎ 안암교당 청년회 운영방향 ◎

- 1. 공부하는 청년회
- 2. 교화하는 청년회
- 3. 복 짓는 청년회
- 4. 재미있는 청년회

# I . 공부하는 청년회

## 1. 정례법회

- (1) 일시 :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 9시 30분 (교화단회 포함)
- (2) 식순 : 반드시 기도식순에 따른 기도를 하고, 청년강연과 문답, 이에 대한 강평과 설교, 질문과 답변
- (3) 주요 내용
  - ① 청년 강연 : 매주 "대중경"과 "정산중사법어"의 한품(편)의 1장을 스스로 골라 연마하거나, 혹은 원불교를 만나서 변화된 점을 연마하여 강연하도록 하고 있다.
  - ② 문화공연 및 영상 :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재미있는 법회를 만들기 위해 노래공연, 춤 공연, 안암교당 뉴스 시청, 영상 시청 등의 시간을 갖는다.
  - ③ 교화단회 : 법회 후에는 반드시 교화단회를 한다.

## 2. 화요 정전공부방

- (1) 일시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10시
- (2) 식순 : 청년강연(30여분) / 질문·답변 / 휴식 후 음악연주 / 교무의 강평과 설교 / 문답
- (3) 내용 : 매주 정전을 순서대로 공부함. (정전이 끝나면 불조요경 중 하나를 가지고 공부함.)

## 3. 훈련

※ [첨부자료1 : 각 훈련별 일정표]

### (1) 정기훈련 (여름/겨울)

- ① 대상 : 모든 교도
- ② 장소 : 반드시 법신불이 모셔진 훈련원에서
- ③ 시간 : 겨울(2월 중), 여름(8월 중), 최소 2박 3일 이상.
- ④ 내용 :
  - 강연을 통한 공부
  - 수행의 재미를 맛보도록 프로그램 구성
  - 깔깔대소회로 하나 되는 시간
  - 훈련 참가독려를 위해 미리 훈련비 완납하는 문화

## (2) 신입교도 훈련

- ① 대상 : 신입교도(입교 1년 미만)를 대상으로 하나, 누구나 참가 가능
- ② 장소 : 교당
- ③ 시간 : 연 2회(상 하반기) / 일요일 오후2시 ~ 6시
- ④ 내용 :
  - 원불교 소개, 교리, 역사, 상시·정기일기, 4종의무, 법회 시 예절 등을 주제로 재가교도가 강연.
  - 주제선정 - 설문을 통해 신입교도가 궁금해 하는 것들을 미리 조사해서 정함.

## (3) 출가여행

- ① 대상 : 전년 법회 출석률 90% 이상인 교도
- ② 장소 : 반드시 법신불이 모셔진 훈련원에서
- ③ 시간 : 1월 둘째 주, 7일간.
- ④ 내용 :
  - 일주일 간 출가자의 삶을 체험해 봄.
  - 좌선, 염불, 헌배, 요가 등 수행시간을

## 4. 교화단회

### (1) 단장중앙 단회 (교무님 ↔ 단장중앙)

- ① 내용 : 교무님과 함께 대중경 한 품이나 정산종사법어 한 편을 공부하고, 정기일기 발표 · 상사일기 점검을 하며, 교화단별 교화현황을 발표함.
- ② 시간 :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오저 7시 30분 ~ 12시
- ③ 장소 : 교당
- ④ 의의 :
  - 단장·중앙에게 심도 있는 공부기회를 제공한다.
  - 자기 단의 교화현황을 계획하고 점검한다.
  - 교화단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교육받는다. ※ [첨부자료2 : 단장중앙 기본 메뉴얼]
- ⑤ 교화현황 발표 내용
  - 단원 명단 및 단 운영 목표
  - 출석통계
  - 단원근황
  - 지난달 교화 내용과 평가
  - 다음달 교화 계획 보고

※ [첨부자료3 : 교화단 발표 PPT]

## (2) 청년 교화단회 (단장중앙 ↔ 단원)

- ① 내용 : 그날의 법회내용(강연과 설교)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복습하고, 일기발표와 함께 1주일간의 생활상 이야기를 하며 단별로 법과 정을 나눈다.
- ② 시간 : 매주 법회 후 (약 1시간 ~1시간 반)
- ③ 장소 : 교당
- ④ 식순 : 개회 → 입장 → 설명기도 → 법의문답 및 강연과 설법에 대한 감상 → 마음일기 발표  
→ 상사일기점검 → 공지 → 폐회 ※ [첨부자료4 : 교화단회 세부진행표]
- ⑤ 미리준비 사항 :
  - 단원들 세정 파악 : 평소에 꾸준한 연락을 통해 단원들의 상황을 파악해 둬.
  - 간식, 기도문, 마음일기, 상사일기, 정기일기 등을 미리 준비해 올 수 있도록 챙김.
- ⑥ 단회 후 불공 :
  - 단회에 간식준비 강연 기도문 일기발표 한 교우들에게 수고 & 격려 문자나 전화
  - 새로 오신 교우에게 꼭 전화로 챙기기.
  - 후기+사진은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인터넷 카페에 올릴 수 있도록 챙김.

### (3) 단장 중앙의 단 교화에 대한 책임 & 단장 중앙에게만 주어지는 혜택

- ① 단장중앙이 단 교화의 책임을 진다!
  - 출석 통계를 발표함으로써 단장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단 교화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준다.
  - 결석 교도는 단장이 관리한다.
  - 교화 결과를 내년 임원 편성에 반영한다.
- ② 단장중앙 만의 혜택을 준다!
  - 단장중앙 단회에서 따로 심도 있는 공부 기회를 갖는다.
  - 임원들만을 위한 고품격 무료 MT를 간다.
  - 리더쉽 향상, 조직관리 능력 배양, 일처리 방식 터득 (사회경험과 지도자 경험을 한다.)
  - 교당 전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교당의 주인으로 성장한다.
  - 신심 있는 교우들과 함께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유대감이 깊어지고 법연이 생긴다.
  - 일반 교도로 성장하여 교단의 주인이 된다.

## II. 교화하는 청년회

### 1. 단원 불공

#### (1) 평상시

- ① 1:1 만남 : ■ 새로운 교화단이 만나는 연 초에 단원들과 최대한 빨리 1:1로 만남.  
 ■ 장기 결석 단원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결석하는 단원들은 반드시 만남.  
 ■ 교무와의 1:1 상담을 권유한다.
- ② 연락 : ■ 전화 통화는 일주일에 1번 이상 한다.  
 ■ 이 때 단원의 근황을 파악하고, 공지사항을 전달해 준다.  
 ■ 조석심고나 수양을 권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법문문자를 보낸다.
- ③ 교무님께 보고 : 월 1회 "교화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 [첨부자료5 : 교화단 보고서 예시]

#### (2) 법회 날

- ① 단원들이 법회 시간에 일찍 오도록 챙긴다, 특히, 단장 중앙은 단원들 보다 더 일찍 온다.  
 ② 법회 때 단장은 신입단원 옆에 앉아서 챙긴다.  
 ③ 법회 때 단장은 신입단원 옆에 앉아서 챙긴다.

#### (3) 신입 단원 불공

※ [첨부자료6 : 신입교도카드]

- ① 사업단 차원 :  
 ■ 처음 온 교우에게 교화용품 선물을 주고, 원불교와 교당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E-mail을 보낸다.  
 ■ 신입교도훈련을 한다.
- ② 교화단 차원 : 교무님 · 단장 연원자 간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하고, 지속적인 연락과 관심 필요.
- ③ 교무님께 맥대기 : 교무님과 1:1로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

#### (4) 생일 챙기기

- ① 생일 전 날 : 인터넷 카페에 생일자의 사진과 축하 멘트를 넣은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서 축하 댓글을 남기게 해 준다.
- ② 생일 당일  
 ■ 축하문자 : 생일을 축하하는 문자나 전화를 한다.  
 ■ 생일파티 : 축하편지와 선물을 미리 준비하여 생일파티를 한다.

## (5) 강연자 챙기기

### ① 강연지도

※ [첨부자료7 : 강연자 지도 프로세스]

- 일시 : 강연자로 정해진 날 ~ 강연 당일.
- 강연하는 단원에게 교육훈련부에서 제공하는 "강연지도 프로세스"에 맞춰서 강연연마를 돕는다.

### ② 강연 축하 선물

- 강연 당일 : 강연자를 소개하는 PPT를 제작하여 강연 전에 보여주고, 기념선물을 전달한다.
- 법회 후 : 수고 했다고 문자나 전화로 챙긴다.

### ③ 모든 교도의 생일과 강연일정 등을 담은 달력을 교당에서 제작하여 교도들에게 나눠준다.

※ [첨부자료8 : 교당 달력]

※ [첨부자료9 : 교도들의 교법 공부를 돕기 위해 제작한 "사경노트", "마음일기노트"]

## 2. 인터넷 카페 활용

### (1) 세 개의 차별화된 카페 운영

#### ① 청년회 카페

- 대상 : 모든 청년
- 카페 구성 : 자유게시판, 교화단별 게시판, 법회나 공부방의 영상 자료 게시판 등
- 효과1 : 인터넷 공간을 통해 자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 효과2 : 법회, 정전공부방 영상 올림, 법회 단회 사진을 올림으로써 결석단원에게도 법회 내용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효과3 : 원거리 교화에 활용한다. 특히 외국유학중인 교도나 지방에 있는 교도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정을 나누고 '설교영상실'등을 통해 교법과도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 효과4 : 교화단 별 New글 경쟁을 유도한다.

#### ② 임원 카페

- 대상 : 사업부에 소속된 모든 임원
- 교화단과 사업단의 업무를 분리하는 효과가 있다.

#### ③ 단장중앙 카페

- 대상 : 해당 년도 단장과 중앙
- 효과1 : 일반 단원들에게 알리기 어려운 정보들까지 세세히 공유할 수 있다.
- 효과2 : 단 운영에 관한 노하우, 단 운영방안, 교전 공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일종의 단장 중앙만의 Incentive가 된다.

**(2) 카페 운영 방침 : 인터넷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반드시 실명제를 사용한다.**

### Ⅲ. 복 짓는 청년회

#### 1. 사업단 활동

##### (1) 임원 회의

###### ① 회장단 회의

- 참석자 : 교무, 회장, 부회장, 각 사업부 부장과 수석차장.
- 시간 :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아침 7시
- 내용 : 교당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을 계획하고, 점검, 평가하는 시간.
- 회의 내용은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여 모든 교도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② 각 부서별 회의

- 수시로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들이 모여 회의함.

##### (2) 임원 훈련

① 참석자 : 교무, 회장단, 각 사업부 부원 모두.

② 시간 : 연간 3회 정도 실시. 토요일 법회 후 ~ 일요일 오전 12시

(1차 훈련 : 전년 12월 중, 2차 훈련 : 3월 중, 3차 훈련 : 7월 중)

③ 사업부 현황 : 총 7개. 기획총무부, 교화부, 인터넷부, 문화부, 교육훈련부, 영상미디어부, 도서자료부

④ 내용 : 각 부서의 목표를 자율적으로 세우고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임.

임원들의 교당 활동 참여를 통해 주인 되는 시간.

#### 2. 봉사 활동

##### (1) 학사기금마련 바자회

① 학사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1회 실시 (석존성탄절 날 기념식 후)

② 내용 : 여러 가지 물품(옷,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 · 경매하고, 행운권추첨, 축하공연, 시식 코너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한다.

③ 의의 : 학사기금 마련을 위해 전 교도가 합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교도들이 직접 물품을 희사하고 구매함으로써 교당의 주인 의식을 높일 수 있다.

(2) 무료 한방 치과 검진, 세무상담

- 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원불교를 알리기 위해 매년 1회 실시 (10월 중)
- ② 내용 : 세무상담 및 재정설계, 한방진료, 치과검진, 비만진료, 스포츠 마사.
- ③ 의의 : 각 분야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재가 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행사를 진행한다.

## IV. 재미있는 청년회

### 1. MT / 단 모임

#### (1) 유년사항

- ① 정례법회를 생략하지 않고 늦게 MT 출발한다.
- ② MT 시작과 끝은 기도로서 매듭을 짓고 술은 마시지 않는다.
- ③ 내용 있는 행사가 되도록 철저하게 미리 준비한다.
- ④ 정(情)적인 모임은 주로 연 초에 집중적으로 한다.
- ⑤ 교당 행사를 활용하여 단모임 일정을 정한다.
- ⑥ 교당 밖에서의 모든 모임은 사전에 교무님께 보고한다.

#### (2) 우수 교화단에게 인센티브 제공

- ① 연 2회(상 하반기) 법회 출석 우수 교화단을 시상하여 단 활동비를 지원한다.
- ② 분단을 할 경우 MT비를 지원한다. (처음 분단 시 50만원, 두 번째 분단 시 30만원)  
단, 분단 조건은 9월 전까지 법회출석이 평균 12명 이상, 4주 연속으로 했을 때.
- ③ 의의 : 교화단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화를 활성화하고, 그 속에서 소속감과 성취감,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게 한다.

### 2. 자발적인 다양한 소모임 활동

명 칭	내 용
수양회	상시 생활에서 수양활동(좌선, 헌배 등)을 서로 점검하기 위해 청년교도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모임. (주 1회 수양 여부 점검 & 시상)
금요 헌배수행 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약 두 시간 동안 교당에서 일반 청년 교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헌배 독경 및 좌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임
요가	교당 문화원에서 요가교실 진행

탁구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교당에서 모여 운동함. (탁구는 남녀 모두 할 수 있는 운동)
중창단	교당 주요행사, 교도 결혼식 축하공연 등 활동.
초대법회 & 콘서트법회	대중가수 초청 및 재능 있는 교도들이 직접 무대를 꾸밈.

[첨부자료1 : 각 훈련별 일정표 - ① 정기훈련 (원기95년 겨울)]

2월 19일 (금)	시 간	2월 20일 (토)	시 간	2월 21일 (일)
선 발 대 출 발  	05:30	기 상	05:30	기 상
		세 면		세 면
	06:00	음력정초 특별축원 기도 (기도 복장)	06:00	음력정초 특별 축원기도 (기도 복장)
	07:00	청 소	07:00	청 소
	08:00	아침 공양	08:00	아침 공양
	09:00	사경 · 성가	09:00	7분 강연 (단별)
	10:00	특 강 및 문 답 서울교구장 왕산 성도종 교무	10:00	
	11:00		11:00	강연대회 및 시상
	12:00	단별 회화 I	12:00	강 평 - 김제원 교무 -
	01:00	점심 공양	01:00	점심 공양
	02:00	특 강 및 문 답 봉산 최봉은 원무 (중간10분휴식, 문답)	02:00	단별 회화 Ⅲ
	03:00		03:00	
	04:00	20분 휴식	04:00	집정리 및 청소
	05:00	단별 회화 Ⅱ	05:00	해제식 (단체사진)
	06:00	저녁 공양	06:00	저녁 공양
	07:00	영상 (월정사단기출가학교)	07:00	집으로~. (상시훈련)
	08:00	사경 · 일기	08:00	
	09:00	참 마음 회복 (헌배 · 염불 · 선)	09:00	
10:00	선 침	10:00		
11:00				
우이동 훈련원도착 ~ (방배치 · 짐풀기)				
준 비				
결제식				
즐겁게 하나되기				
염불 · 선 · 일기				
선 침				

## [첨부자료1 : 각 훈련별 일정표 - ② 신입교도훈련 (원기 95년 하반기)]

구분	시간	분	교육내용	강사 및 담당자	비고
준비	1 : 50 - 2 : 00	10	준비, 성가	문화부	
개식	2 : 00 - 2 : 05	5	개식, 기도	사회자 - 000	
0 time	2 : 05 - 2 : 15	10	원불교 소개 영상	영상미디어부/교육훈련부	
1 time	2 : 15 - 2 : 45 < 40분 - 45분 질의/응답 >	30	원불교 핵심 교리	(일반) 000 교도님	
2 time	2 : 45 - 3 : 15 < 10분 - 15분 질의/응답 >	30	원불교 역사 <대중사 십상, 4축2제의 유래 등>	(청년) 000 교우님	
휴식	3 : 15 - 3 : 35	20			
3 time	3 : 35 - 4 : 00 < 55분 - 4시 질의/응답>	25	상사일기와 보통급 10계문	(청년) 000 교우님	
4 time	4 : 00 - 4 : 30 < 25분 - 30분 질의/응답>	30	정기일기	(청년) 000 교우님	
휴식	4 : 30 - 4 : 45	15	휴식후 간단한 요가 (5분)	(청년) 000 교우님	
5 time	4 : 45 - 5 : 25	40	열반과 천도	김제원 교무님	
	5 : 25 - 5 : 40	15	그 밖의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김제원 교무님	
감상담	5 : 40 - 5 : 55	15	소감 나누기	참가자	
폐식	5 : 55 - 6 : 00	5	기도, 폐식	사회자 - 000	

[첨부자료1 : 각 훈련별 일정표 - ③ 출가여행 (원기 94년도)]

	4(일)	5(월)	6(화)	7(수)	8(목)	9(금)	10(토)	비고	
		기상 (04시50분)							
5:00		아침심고 요가 좌선(장소 활불원 법당-김제원 김정원교무)						명찰 교전	
6:30		선요가 (박윤호 사무국장)						tape, 앰프	
7:00		청 소							
7:30		아침 공양 (小食)							
8:50								익산으로	
9:10		노래 전서 사경(김정원 교무)							노트, 전서, 필기구,
10:00		청타원 이경옥 교무	역사 박물관장 신성해 교수	청타원 이경옥 교무	청타원 이경옥 교무	대종사10상 김성근교무	칠판 준비 (분필, 지우개) 茶, 컵		
10:10		휴 식							
11:00		청타원 이경옥 교무	역사 박물관장 신성해 교수	청타원 이경옥 교무	청타원 이경옥 교무	대종사10상 김성근교무			
11:10		휴 식						좌산 상사 배알	
11:50		요가(박윤호) 좌선(김제원 김정원교무)							
1:30		점심 공양(小食)						서울로 출발	
1:20	1:20 교당 출발	탄생가 대각지 오광선교무	삼발재 윤효근교무	기도봉 김형진교무	옥당 박물관 신성해 관장	기도봉 김형진교무	도착	성지 순례	
3:40		요가 헌배 염불 좌선				강연 (5~7분)			
5:20								휴식	
6:00		저녁 공양(小食)							
7:20	결제식	노래 . 회화 및 일기발표					청년법회	일기,성가책	
7:50		헌배, 염불, 선 (김정원 김제원 교무)				해제식 청타원님		CD	
9:00									
10:00		일기 & 세면 & 선침 (9:30 저녁 심고, 10:10 소등)							

[첨부자료2 : 단장중앙 단회에서 교육받는 "단장중앙 기본 매뉴얼" 목차]

큰 목 차	하 위 매 뉴	페이지
1. 단장중앙의 첫걸음	1. 마음가짐 및 기본원칙	
	2. 단장중앙 하나되기	
	3. 단장중앙 카페	
2. 단운영 및 단장중앙역할	1. 단원불공 1) 기본적인 단원불공 2) 신입교도불공 3) case by case 4) 불 공 카 드 5) A급 단원 활용하기 6) 단운영 회의	
	2. 단모임 & MT	
	3. 단카페 활용하기	
	4. 교무님께 맥대기 & 교화단보고서 1) 교무님께 맥대기 2) 교화단보고서	
3. 단 회	1. 순서	
	2. 세부적인 미리 준비사항 및 노하우 1) 미리 공지 및 준비 2) 단회 관련 미리 준비	
	3. 세부 진행표	
	4. 회화 시 주의사항	
	5. 단회 후 불공	
4. 단장중앙 12월/1월 매뉴얼	1. 12월~1월의 중요성	
	2. 12월~1월까지의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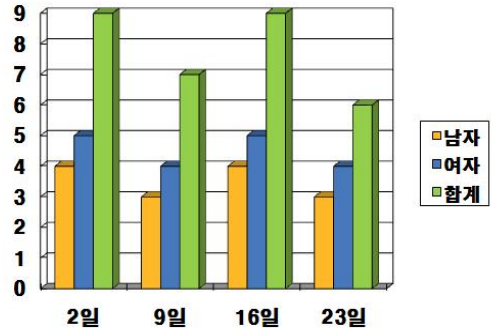
[첨부자료3 : 교화단 발표 PPT]

단장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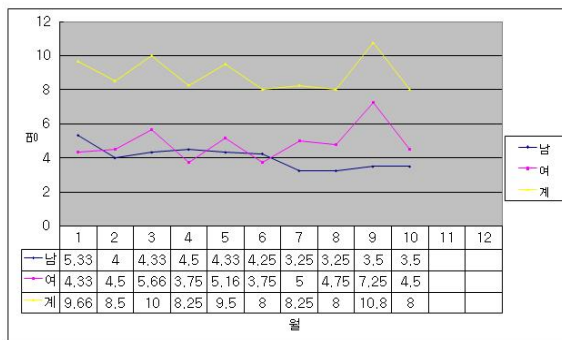
정례법회 통계

	10/2	10/9	10/16	10/22
남	4	3	4	3
여	5	4	5	4
전체	9	7	9	7
평균	8 (남:3.5 / 여:4.5)			
특이 사항	무결석: 허석, 채수한, 김법준, 백소영 1회결석: 허공은, 신선은, 남(명희)			
분석				

정례법회 누적통계



정례법회 누적통계



단원근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8세. 휘경여중 국어선생님.</li> <li>•처음 원불교를 접했음. 그 동안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 교당 다니면서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오게 되었음.</li> <li>•법에 대한 관심이 있고, 조용한 성격.(아직 안 친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음.)</li> <li>•이번 달에는 출석이 저조했음. 자주 연락해서 법회 참석하도록 불공하겠음.</li> </ul>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9세. 잘실역에 있는 온라인 게임회사로 이직했음. 사당 거주.</li> <li>•신선은 교우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구.</li> <li>•매우 신중한 성격. 아직 입교 안 함.</li> <li>•환요공부법에 참석</li> <li>•입원, 개별만남 등 다 방법으로 불공하겠음.</li> </ul>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7세. 휘경여중 수학생선생님.</li> <li>•어제 중등임용고시 시험 봤음.</li> <li>•시험 후에 자주 나오겠다고 했음.</li> <li>•법에 대한 관심이 있고, 환요공부법에도 꾸준히 참석할 수 있도록 불공하겠음.</li> </ul>
000	

지난달 교화 특이사항 및 평가

	10월달 현황 및 평가	11월달 계획
1:1 미팅	신혜연 (수한 석)	김혜정 교우
전화/문자	애경사 및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해당 단원에게 연락 및 다른 단원들에게도 전달하여 함께 공유하고자 함.	주 2회 이상 문자 & 주 1회 이상 전화 하기!!
조석심고	문자로 챙기고 있음	계속 챙기겠음
상시일기	단회 시작할 때 체크	매주 단회 시 체크
교화인연불공	김보영, 이진, 남명희 교우 집중불공	입교 & 사업단에 참여토록 하겠음.

지난달 교화 특이사항 및 평가

	10월달 현황 및 평가	11월달 계획
헌배, 수양 교전봉독	수한교우가 법문문자 보내고 있음.	상시일기 체크할 때 점검하고 챙기겠음. 교당에 가까이 사는 사람에게에는 헌배수행의 밤과 아침 좌선을 권유~ 바쁜 사람에게에는 챙겨주는 여유
아침좌선	수양회 회원들 중심으로	아침 수양을 권장하는 문자 보내기 <수한>
단운영	초대법회 새로오신 분들 중심으로 불공했음.	새로오신 분들 중 3명 이상 안착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불공하겠음.
단모임	10월 31일 연합법회 후에 함께 식사 예정. ^^	새로운 교우들과의 친목 도모를 위해 화공 전에 식사 모을 것겠음.

[첨부자료4 : 교화단회 세부진행표]

	식 순	유 념 할 점
1	* 개 회 (죽비3타)	◆ 개회 멘트 준비 - 상황에 맞게~
2	* 입 정 (2분정도)	◆ 적어도 1분 이상/ 1분이하는 하지 않도록 한다,
3	* 일원상 서원문	◆ 토요일회 끝나고 하는 단회의 경우는 생략가능
4	* 설 명 기 도	◆ 정성스럽게
5	* 성가 20장	◆ 20장 “교화 단노래” 토요일회 끝나고 하는 단회의 경우 생략가능
6	<p>&lt;회화 1&gt;</p> <p>* 법의문답</p> <p>* 강연&amp;설법에 대한 감상소독/질의문답</p>	<p>◆ 원활한 회화를 위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화시 유의사항을 읽고 시작하는 것도 원활한 회화에 도움된다</li> <li>- 회화 참여유도 예)비슷한 경험이 없냐, 느낌이 어땠냐~는 등</li> <li>- 사변적이 아닌 실생활의 이야기를 하자</li> <li>- 꼭 교법과 연결해 설명하자(진리,법,회상,스승님에게 맥을 댈다)</li> <li>- 그날의 ‘강연’ ‘설법’ 등과 맞물려 돌아가도록 회화를 유도한다</li> <li>- 시간안배 : “몇 시까지 단회가 진행되니 유념해주세요~”라고 말한다.</li> </ul> <p>◆ 참석 못한 단원의 세정을 공유하고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p> <p>◆ 단장 중앙이 먼저 모범보일 것 (미리연마필요)</p> <p>예) “♡♡편 어디를 읽었는데 어떤 점이 어떻게 좋았다“</p> <p>-구체적인 감상발표/ 생활과 접목되게!!</p>
7	<p>* 이달의 교전봉독</p> <p>-&gt;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 봉독</p> <p>&lt;참고&gt;</p> <p>월초 단회 때만 시행</p>	<p>◆ 먼저 이달의 교전일기인 ○○편 1장 봉독 후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 봉독 (○○편이 어떤 내용인지 언급하며 호기심과 공부심을 일으키자)</p> <p>◆ 진행자는 “○○편”이 몇 장이니 하루에 얼마씩 읽어야 하는지 밝혀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금씩이라도 매일 성자의 말씀을 받드는 것이 중요!</li> <li>- 막연하면 안됨 “나는 언제 어디서 교전을 봉독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잡도록!</li> </ul> <p>예) 단장 중앙은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 하고</p> <p>단원들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공유하고 유무념으로 잡아주는 것도 좋다</p>
8	<p>&lt;회화 2&gt;</p> <p>* 마음일기 발표</p> <p>* 한주 살아온 이야기</p>	<p>◆ 단장 중앙의 일기 기재는 필수-&gt; 명확도, 시간절약, 신뢰도 향상</p> <p>◆ 일기는 기재해 와야 서로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미리 챙겨주고 도와주기)</p> <p>일기 기재 못해왔을 경우 회화라도~</p> <p>◆ 한주 살아온 이야기는 사변적이고 수다식이 되지 않도록 유도</p>
9	<p>* 상사일기 점검</p> <p>* 정기일기 점검</p> <p>* 정기일기 제출</p>	<p>◆ 일기를 걷어서 유무념이 구체적인지 체크해준다.</p> <p>잘되는 것은 왜 잘되는지,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회화도 좋다.</p> <p>◆ 칭찬을 많이 하자 - 안 써온 사람이 내는 것 꺼려한다.</p> <p>한번이라도 써왔으면 칭찬을 통해 일기 기재에 의욕을 불어넣어주자.</p> <p>◆ 상사일기를 쓰기 위해서 상사일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언제 어디서 체크할 것인지 단장 중앙이 구체화시켜 주어야.</p> <p>◆ 공동유무념인 ‘조석심고,교전봉독,상사일기 기재,교화인연불공’을 권장하고 구체화 &amp;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자.</p> <p>◆ 정기일기는 제출하고 카페에 올리도록 한다.</p>
10	<p>* 광 고</p> <p>* 단비 걷 기</p>	<p>◆ 광고가 중요하다. 공지사항을 미리 연마해 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원 특이사항 &amp; 생일, 시험, 강연날짜, 칭찬할일 등..</li> <li>- 단비&amp;훈련비(가격 및 어떻게 쓰여 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li> <li>- 화음공부방 &amp; 법회 강연내용 및 강연자 &amp; 원음방송 공지 =&gt; 참여유도</li> <li>- 행사시 행사 관련 공지를 통한 참여유도 / - 카페 단 게시판 활성화 유도</li> <li>- 단모임 후 식사 등에 관한 공지필요</li> </ul> <p>◆ 건의사항 ◆ 단모임 소감 및 소득&amp;감상 공유도 좋다.</p>
11	* 성가 127장	◆ 127장 “원하옵니다” (혹은 상황에 따라 다른 성가 가능)
12	* 폐 회 (죽비3타)	◆ 오늘 소득을 잘 되새기고 실생활에서 활용토록 다짐하고 유무념 잡도록 하는 멘트
<p>◆ 기타 유의사항 : 미리 시간안배를 잘 해야 한다 / 처음오거나 오랜만에 온 교우가 있는 경우 잘 배려한다.</p> <p>단장중앙이 자꾸 가르치려 하지 말자. 단정 짓지 말자.</p>		

[첨부자료5 : 교화단 보고서 예시 ]

■ 청년 (-) 단 (-) 월 교화단 보고서 ■

단장 : 000  
중앙 : 000

	일정 및 계획	단회분위기 및 단회운영계획	단모임&엔티	특별히 유념해야 할 일 (애경사 등)
이번달(평가중심)	초대법회 이후 남명회(7회) 이진(3회), 김보영(3회) 법회 참석. 세 교우들이 입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회출석을 8명, 화공출석을 5.3명 지난 달 보다 각각 2명 씩 줄었습니다	단 분위기는 좋고, 출석도 꾸준합니다. 하지만 정적으로는 많이 다가간 반면, 법적인 불공이 모자랐습니다.	특별한 단모임은 없었습니다. 중등임용고시를 보는 교우들 선물 준비해서 단회 때 나눠줬고, 신혜연 교우와는 독서실 근처에서 만나서 밥먹고 선물 전단했습니다.	5월 채수한 강연 24일 김혜인 생일
다음달(계획중심)	연합법회(31일) 8명 참석 예정. 한방진료 봉사 6명 참석 예정. 조석심고문자 & 수양문자 보내서 챙기겠습니다.	보다 법적으로 불공하기 위해 상시일기 체크도 매주 단회 때 하였습니다. 좌선, 헌배 등 수양 행기는 연락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단원들 모두가 진급하는 상황에서 다음 단에 갈 수 있도록 불공하겠습니다.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특별한 단모임 계획은 없습니다. 10월 31일 연합법회 후에 함께 저녁식사 예정입니다 김혜정 교우 시험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할 예정입니다.	2월 채수한 생일 13일 초등임용고시 (김혜정) 20일 이진 생일 27일 박솔 원불교를 만나서 강연

이름	출결				공부 상황(x)			불공 내용	단원 근황	앞으로의 불공계획			
	단회	단회	단회	단회	상시일기	사경	사경						
7 박00	단회	단회	2	9	16	23	상시일기	60	사경	50	연락 자주 하고 있고, 학교에서 과제도 많고 시험도 있어서 만나 밥 먹었습니다.	최근에 중간고사 기간과 겹쳐서 인적으로 만나 밥 사주고 앞으로 출석토록 불공하겠습니다.	
	단회	단회	5	12	19		심고	50	유무념	50			
8 남00	단회	단회	2	9	16	23	상시일기	80	사경	100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고, 얼마 전에 입교 권유를 했지만 다음에 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최근 잠실에 있는 온라인 게임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래픽 관련 일은 계속 합니다.	공부방에 참석을 못했는데, 다음달에는 참석 하도록 불공하겠습니다.
	단회	단회	5	12	19		심고	100	유무념	100			
9 김00	단회	단회	2	9	16	23	상시일기	80	사경	80	시험 관련해서 선물, 편지 준비해서 전달했습니다. 연락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23일 임용고시 시험 봤고, 시험 준비 때문에 바빴습니다.	임용 후로는 계속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단회	단회	5	12	19		심고	60	유무념	50			
10 이00	단회	단회	2	9	16	23	상시일기	50	사경	-	이번 달 법회 공부방에 참석이 뜸합니다. 연락을 몇 번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을 맡은 반 아이가 사고를 쳐서 그 일로 많이 힘들었지만 잘 해결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불공해서 법회 공부방 출석을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단회	단회	5	12	19		심고	50	유무념	30			
11 김00	단회	단회	2	9	16	23	상시일기	80	사경	80	가끔 응원 문자 보내고 있고, 법회는 기도식이라도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11월 13일 임용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단원들이 준비한 선물과 편지 전달하고 식사 같이 할 예정입니다.
	단회	단회	5	12	19		심고	80	유무념	80			
12 부00	단회	단회	2	9	16	23	상시일기	50	사경	50	가끔 연락하고 있습니다. 수한 교우가 학교에서 만나서 식사 같이 했습니다.	현재 연합당에 다니고 있고, 얼마 전에 중간고사 시험 준비로 바빴습니다.	수한교우가 학교에서 식사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단회	단회	5	12	19		심고	-	유무념	-			

[첨부자료6 : 신입교도카드]

원기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정례법회 <input type="checkbox"/> 화요공부방 연원: 반갑습니다. <input checked="" type="radio"/> 원불교 안암교당입니다.			
이름		법명	
핸드폰	0 1	-	-
이메일		@	
생일	력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양력 <input type="checkbox"/> 음력
카페가 입	http://cafe.daum.net/jnyouth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기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소중한 인연으로 뵈었으면 합니다.			

[첨부자료7 : 강연자 지도 프로세스]

### 1. 강연의 원칙

항목	내용	비고
강연 시간	25분 내외 (14P. 80%,-10% 기본양식대로 A4 8-9장)	연습 삼아 미리 해볼 것. 시작 시 자기소개
1차 원고 제출	단장과 서도안 부회장에게 10일 전까지	
최종원고 제출	교무님께 5일 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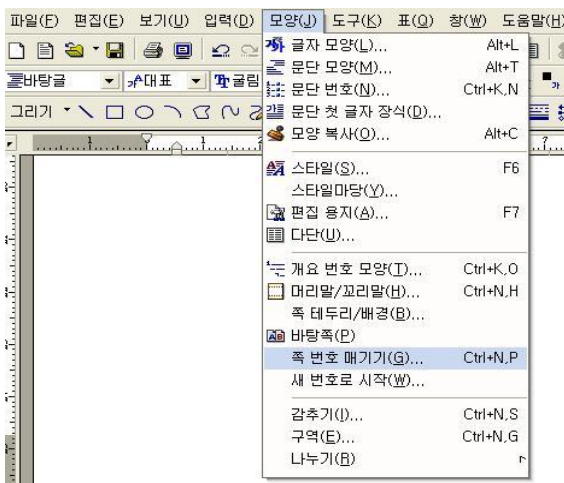
원불교를 만나서		
자기 소개	이름, 나이, 고향, 학교, 지금 하는 일, 가족관계, 현재 활동하는 교화단	
중점 포인트	원불교를 만난 후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	살아온 이야기는 너무 길지 않게 한다. 원불교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하거나 변화 과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예화	공부방, 법회, 단회에서 얻은 소감들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 했는가	
주로 어디서?	직장, 학교, 대인관계에서 달라진 점	현장감 있게
향후 계획	앞으로 도학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자신의 서원을 돌이켜보면서
주의사항	지난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이 흐르지 않게 한다.	

## 2. 강연 연마 일정표

기일	내용	비고
~D-60	전체적인 방향 잡기	
~D-20	생활 속에서 강연 연마	강연 주제를 실생활에 적용해 보고 그로부터 감각 감상을 이끌어낸다. 그 때 그 때 들었던 감각감을 일기로 적어두고 원고에 활용한다.
~D-15	원고 작성	이제껏 연마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를 써 내려간다.
~D-10	스스로 원고 수정	자신의 원고를 스스로 점검한다.
~D-7	단장님과 교육훈련부에 원고 보내기	원고를 메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한다. 단장님의 지적이나 충고에 적극 수용하는 마음을 갖는다.
~D-3	교무님께 원고 보내기	단장님 혹은 회장단이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를 수정하고 교무님께 메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한다. 교무님의 스케줄을 여쭙보고, 따로 상담 시간을 잡는 것이 좋다.
~D-1	최종 수정	최대한 타력의 힘을 빌려 수정과 점검을 반복한다.
~D-1	강연 리허설	시간 체크 발음, 태도 체크

## 3. 강연 원고 양식

### ※ 쪽 번호 매기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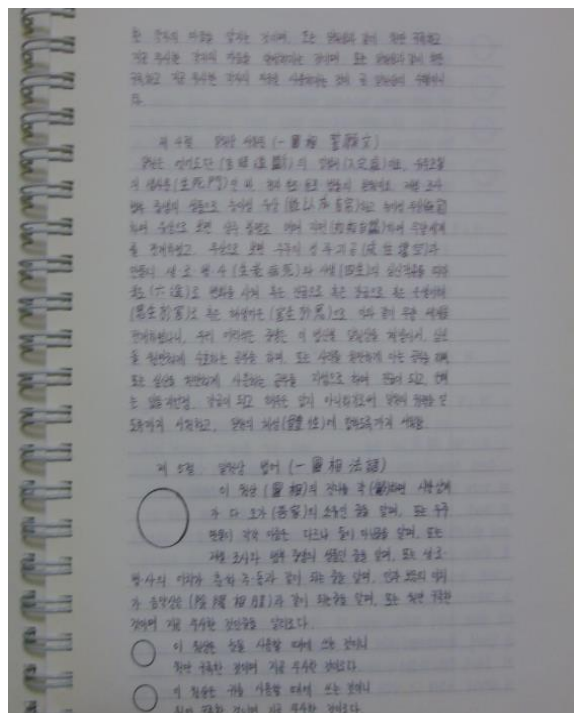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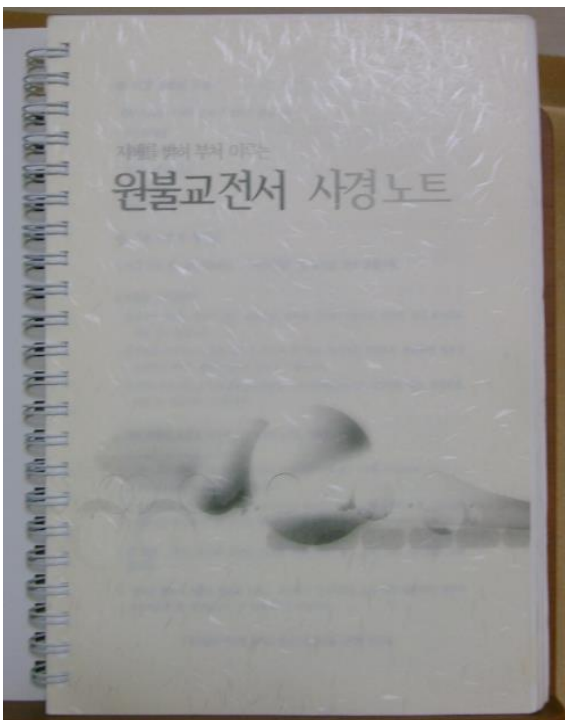
### ※ 글자크기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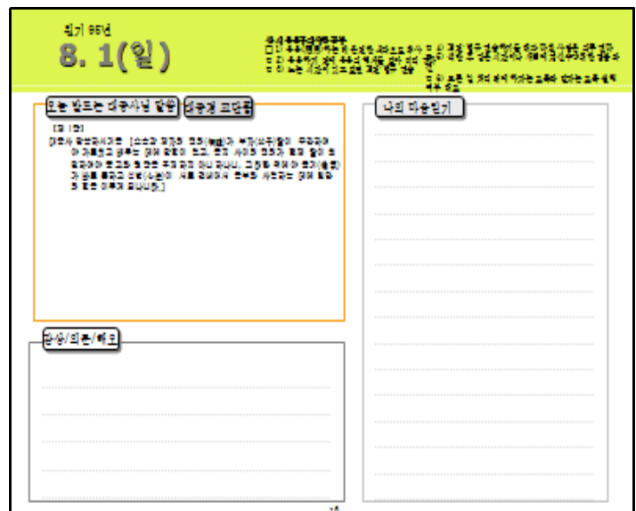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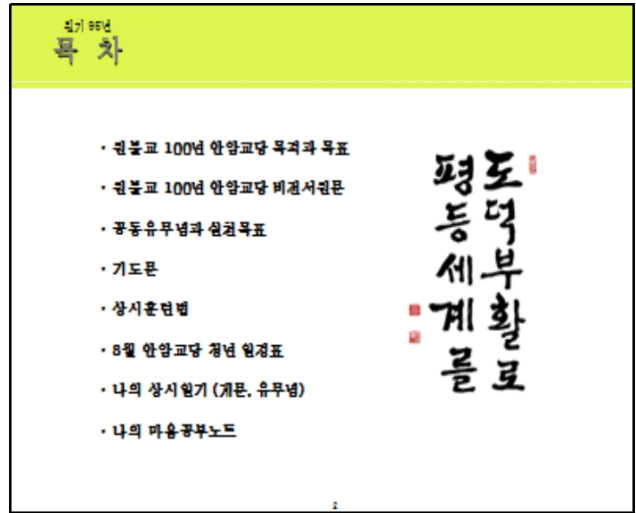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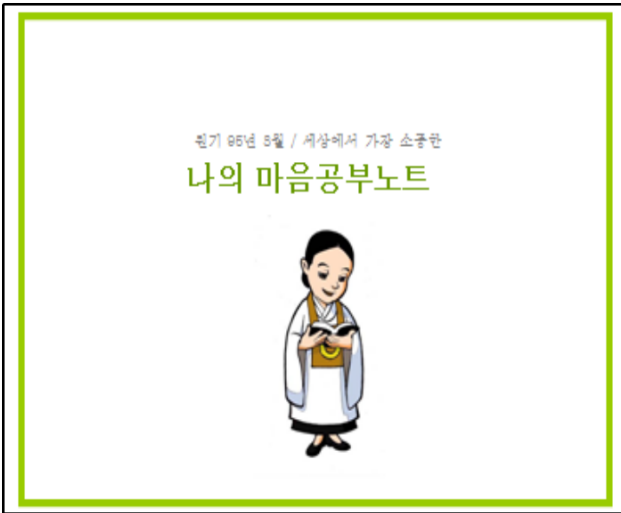
[첨부자료8 : 교당달력] 주요 내용 : 교당일정, 생일, 강연자 일정 등.



[첨부자료9 : ① 사경노트]



[첨부자료9 : ② 마음일기노트]



## ■ 교화단교화 사례발표2

= 신림교당 일반교화단 교화 =

### 이 선 조 교무

▷ 원불교 신림교당 교무



# 신림교당 일반교화단 교화

이선조교무(신림교당)

1. 교화자로서의 나의자세
2. 내가 경험한 교화단 활동
3. 신림교당 일반 교화단 운영 실태
4. 교화단 중심 교화(재가 교역자 활용)를 위해 실시한 교화단 사례
5. 교당 교화단 운영에 있어서 넘어서야 할 과제
6. 교화단 교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7. 교화단 운영 프로그램 사례(별지)
8. 결어

## 1. 교화자로서의 나의자세

- 앉으나 서나
- 자나 깨나
- 오매불망
- 불철주야
- 교화를 위해 애를 써도 어려운 교화현장 인데
- 언제 여건 따지고, 상황 가리고, 휴일 따지고 할 것인가?

## 2. 내가 경험한 교화단 활동

### 1) 세분의 교화부장을 모시며

- ① 원기60 ~ 62년 : 좌산 이광정 부장님
  - 교화단 교화법 강조
  - 유무념공부법강조
  - 어린이법회활성화
  - 초입교도훈련교재 강화
  - 교화백서 발간 분석

② 원기62 ~ 63년 : 이산 박정훈 부장님

- 정기훈련 11과목 철저히 이행 하는 분위기 장려.
- 월간 교화 자료 본완

③ 원기68 ~ 71년 : 법타원 김이현 부장님

- 출가교화단법 실시운영.
- 어린이집.유치원설립.
- 교화단 훈련교재 개발 강화

## 2) 교당현장에서 나의 교화단 지도 사례

① 원기65년~67년 광주교당 부교무(유치원 원감시절)

- 유치원자모단을 직접지도하며 참여
- 유치원 자모 3단을 형성하고 교화단 단회를 월마다 실시하며 봄.가을 철에 야유회등 단합대회를 하며 교도로 접근함  
(지금 그때 자모들 이 곳곳에 교당의 간부로 교도생활을 하고 있다)
- 어린이단구성 학년별로 구성하고 청년들을 담임으로 정해줘 70명 출석
- 어린이지도자 꿈밭 모임 강조 시작  
(다음주 단활동자료 만들고 의견교환 하며 잘 되고 있었는데, 청년들은 광주 사태로 인해 교당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 하고, 단순한 교세확장 만의 목적으로는 교화 활동자가 되려하지 않음)
- 중학생단(단별 모찌판매 엿판매 등으로 이웃돕기참여  
중법사님께 선물 사가지고 세배하러 가는 활동이 좋았음)

② 원기72~원기79년 도봉교당 단독교무시절(창립10년 된 교당)

- 부임당시 (72년)도봉교당 교화단 남자1단 여자 4단
- 3년 만에 남자2단 여자 6단 8단으로 증가
- 3년 후에는 남자3단 여자8단 11단으로 증가
- 2년 후 남자3단 여자 10단 으로 13단이 편성됨
- 교당자금 1억이상(건축 준비금 조성 분위기, 봉공회체계화)
- 야학교실노루목배움터 운영(유아,어린이,학생,청년,일반 연계한 단 활동)
- 매달 단활동을 집으로 돌아가며 진행함  
(주 내용은 기도 및 지난달 신앙생활 했던 내용 회화)
- 이때 단회 참여 조건은 반듯이 새로운 사람을 한명이라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도록 유도함
- 반듯이 가족들 중 애경사 의식을 참여 하게 함
- 남자 교화단은 토요일에 진행함
- 반듯이 봄소풍과 가을소풍 그리고 여름 훈련 신년공동은천 등을 실시함
- 교화단에서 어린이 훈련 시 식사봉사를 하게 함

- 남자교도들이 중학생 야학 교실 노루목배움터를 돌보도록 함
- 어린이도 단활동으로 법회운영함

= 회고해보면 단 활동이 기다려졌다는 장점과  
어린이 학생 청년과 일반 연계가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 ③ 서전주교당에서의 교화단 활동

- 단순교시 반드시 단원들을 참여시킴
- 청년세대를 다시 일으켜야 하는 과제와 학생회 재창립과 어린이교화 활성화와 일반 교화의 새로운 비전 제시가 과제로 파악됨(이런 과제 해결을 하면서 단회가 활성화 되기 시작함)
- 일반 남자 4단 여자 8단에서 남자 5단 여자 11단으로 편성함.
- 청년회 단활동(2단)으로 다시 활성화됨(교단30주년 청년 10년행사, 매 년 주제가 다른 청년중심 예원제 개최, 교리공부실시)
- 단활동 외에 교화단 활동전에 이뤄졌던 친목단체가 잘 되고 있었음(성림회(여자교도), 목우회(남자교도), 원 회(젊은여자교도))
- 교도자녀 부부 중심으로 청운단을 조직한일이 성공한편임
- 청년회 활성화를 위해 결혼 청년을 단으로 운영(매년 년1회 문화행사)
- 훌륭한 창립주무님들이 창립회장들이 공부사업에 모범을 보여줌
- 청년회 3박자가 잘 맞음 (교무의 적극적 지원, 부교무의 카르스마 지도력, 청년들의 적극적참여)

### ④ 원기90년~ 95년 현재 : 신림교당의 교화단편성및 운영현황(창립33년)

- 일반남자교도8개단편성(4개단합동활동,2개단합동활동,2개단부부활동)
- 일반여자교도 22개단 편성(3개원로단, 2개부부단, 4개청소년부모단)
- 3개단 새교도단, 2개 타교당에서 전입된단, 1개 교육자중심단, 보통일반 친근자 중심 단 7개단 으로 구성
- 청년단은 직장청년단 대학생단 학사관단, 3단 법회 요일 다르게함
- 학생단은 중학생단, 고등학생단 2단 이나 스카웃 활동으로 나누어 활동, 어린이단 2개단 편성(저학년.고학년)
- 서울대 2단까지 현재 총 39개단

= 문제점은 어린 청소년등이 단 개념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화자의 인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 신림교당 일반 교화단 운영 실태

**1) 교화단회 운영은 일반교도 단장 중앙이 진행하고 있다.**

- 교화훈련부교재 중심 월1회 진행함

**2) 금년 1월부터 교화단 리모델링이 시작되어 교화단 명을 대중경 15품과 정산종사범어 15편으로 이름을 정하였다.**

**3) 단체장은 단장과 겹치지 않게 한다.**

**4) 교화단 단장·중앙이 교화분과위원이며, 교화분과장이 항단장 역할을 한다.**

- 항단 개념을 크게 강조 하지는 않는다

**5) 교화단을 바꾸자하면서도 변화를 싫어하므로 단편성에 큰 변화는 주지 않고, 새 단을 불리도록 3년간 과제를 주어 집중으로 새단 불리기에 힘을모으게 했다.**

**6) 과거 단장·중앙이셨던 분들은 법사 법호인 기도모임인 호법회를 구성하여 별도 교단사업과 공부분위기 조성을 하였다.**

**7) 단에서 하는 교화 및 봉사활동 시스템을 운영한다.**

- 점심공양준비(1년 2회 (1회 2일간 실시: 180~200명분))
- 한술밥 공양운영팀 별도운영: 단외 활동, 운영비 관리, 메뉴 보충 (1회공양 후 약 7만~11만원 수익이 생김 : 식재료값 지불)
- 법회안내 : 1년1회 1달씩(젊은단 중심)
- 교당청소
- 단활동 보고(단원상황)를 통해서 순교계획 자료로 활용
- 새교도 환영모임(단장주관)
- 단별 강연 참석(단장중앙이 함께 연마)

### 4. 교화단 중심 교화(재가 교역자 활용)를 위해 실시한 교화단 사례

**1) 매월 교화협의회(교당교의회) 실시**

- 교화협의회는 개회/입정/묵상심고/범어봉독/각분과경과보고/교감님 말씀/안건협의/폐회 순으로 진행(매월1월에 그해 각단 계획 발표)
- 교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교화협의회를 통해서 실시

## 2) 매월 교화단회를 실시

- 각 단별로 실시(혹은 합단 : 돌아가며 교무가 참석)
- 교화단회가 잘 챙겨서 이루어지는 단도 있고, 아예 한 번도 진행하지 않는 단도 있음
- 단별로 단운영의 차이가 있고, 잘 이루어지지 않아, 년 2회~4회는 총단회 법회를 실시하여 단회실시 분위기를 촉구 한다.

## 3) 1/4분기로 비전 전진대회를 하며 단장중앙 훈련 실시

- 교화단 마음공부 교재에 대한 진행법 공부(교화훈련부에서 발행한 교재)

## 4) 매월 3주 4주는 일요일에 단회를 개최

- 단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교화분과에서 도와줌

## 5) 매년 재가교역자 훈련 실시(지구, 교당)

## 6) 매 3년마다 재가교역자 사령장 수여식(교구)

- 사령장 수여식을 각 교당별로 하면 사령장을 안 가져가기도 함

## 7) 교화단별 특성을 부각시켜줌

## 8) 교당자체에서 교화분과 주관으로 교리학교와 선방을 운영

- 기도 선방 봉공활동 출석을 단장중앙이 기록 하게함  
(기본생활과정-심화과정-적공과정을 매년 반복 예정)

## 9) 독경반 운영 단 의식교화 도움

# 5. 교당 교화단 운영에 있어서 넘어서야 할 과제

## 1) 단원을 창조적 교화자로 양성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 ① 기본적으로 단별로 오랫동안 뭉쳐져 있는 기운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성이 강한 몇 분에 의하여 결국은 단 조정을 자주 할 수 없다 (프로그램으로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 ② 명찰을 착용하나 자리 앉기를 단별로 하여 1단계 소속의 욕구를 채워 주는 역할 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이상(새단불리기 등)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 ③ 안주하려고 하고 소수의 핵심 멤버가 분위기 조정을 주도한다.

- 잘되면 좋고 안 되면 상처를 받는다.
- 개인 경제 유통흐름과 함께하는 교당분위기가 있다.

## 2) 매 주마다 모임을 해야 하는 교무님의 시간 한계가 있다.

- 매월 1주는 교의회 혹은 단장중앙훈련  
2주는 분과회의(교화협의회)
- 3주· 4주는 각단체회의 및 교화단회(법회 후 대부분 천도재 등 의식을 진행 하다보니 우선 각 교화단회나 순교에 참여할 시간 배려가 어렵다.

## 3) 교무의 역할에 너무 기대가 많다.

- ① 교도가10번 챙기는 것 보다 교무가 한번 챙기는 의식이 팽배해 있고, 교리 설명은 교무 몫으로 미루는 단이 많다.  
챙기면 따라오고, 챙기지 않고 단장 중앙에게 맡겨 놓으면 쉬고 있다.
- ② 결석교도와 상담을 할 수 없는 자질을 가지고 단장 중앙을 하고 있다.
  - 매년 초 재가교역자 훈련을 통해서 기운을 살리면 해당교무도 재가교역자도 마음이 살아 났다가 몇 개월 지나면 평상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 ③ 내 자신을 비롯하여 각 교당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느껴진다.

## 4) 지자본위보다는 사업성적과의 관계에 따라 교당임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 단원 중에서 단장·중앙을 맡게 될 때 지자본위보다는 입교년도는 오래되었으나 사업성적이 부족하다 하여 다음 차례에는 꼭 법호를 받아야 되니까 임원을 맡아야 된다고 하며 단장 중앙이 되는 경우도 있다.

## 5) 유지보은미보다 교도활동 기본 돈이 많이 지출된다.

- ① 회장, 부회장, 단장, 중앙, 주무, 순교, 봉공회, 여성회, 청운회, 원덕회, 친목회 등등 여러 가지 단체와 그에 따른 직책이 있다 보니 조금 활동력이 있는 교도가 있으면 여러 가지 직책을 맡게 됩니다(교무의 권유, 본인의 수용)
- ② 2기~3기정도 임기를 지내다 보면 친불친이 생기게 되고 일부 영향력을 갖게 되어 그 분이 맡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
  - 그분 그룹(단)으로 부터 왕따 등등 표현을 쓴다(고도의 인재관리가 필요함)
  - 일부가 주도되면 그 그룹은 잘한다고 하나 다른 그룹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
- ③ 직책을 맡기고 키워주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도가 있는데도 변화를 주지 못하게 된다.

## 6) 교화단 구조와 분과활동구조

- 주무 및 회장단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에 늘 신경을 켜야 한다.

## 6. 교화단 교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 1) 학생 때부터 교화단 교화를 심도 있게 체험해야 한다.
- 2) 출가교화단에서 교도훈련과 교도범위사정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200명되는 교도를 어떻게 교무혼자 범위사정을 할 수 있을까?
  - 훈련못가는 사람은 식구들 먹여야하고 환자 돌봐야 하므로 숙식훈련이불가하다
  - 1박2일훈련 보다 평소 단회에서 상시일기점검 한 것이 훈련점수로 되어야 한다.
  - 숙식 훈련 못하는 사람은 출가단에서 1일 훈련을 한번 더 하도록 했으면 한다.
- 3) 예비단장 훈련을 하여 목적달성에 보상을 해준다.
- 4) 재가교도도 임기가 있어 70살 이상이면 현직(교의회 활동)에서 새 교도 교화프로그램으로 접근하도록 연대해주면 좋겠다.
- 5) 2만 교화단 단장양성 참 좋다.
- 6) 나는 상단의 단원이며 하단의 단장이다.
- 7) 나는 적어도 9명의교화를 위해 늘 기도하고 공 드리고 있다
- 8) 성과를 내신 분을 치하하고 보상해야 한다.
- 9) 교구별로 천천히 하지 말고 교단전체가 불붙여서 분신과 열정과 기쁨이 불붙게 하고 전진대회가 되어 서원을 세워야겠다.
- 10) 중간 중간 평가를 하고 다시 용기를 주며 도전 하도록 시스템을 교구에서 운영 했으면 한다(서울교구 9인 연원실천단의 예)

## 7. 교화단 운영 프로그램 사례(별지)

- 1) 감동을 주었던 프로그램
- 2) 교화방법의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
- 3) 초입자를 만나는 프로그램.
- 4) 연원지도 프로그램
- 5) 멤버십을 형성하는 프로그램
- 6) 리더십을 꿈꾸는 프로그램.

## 8. 결어

- 1) 크게 변동이 없는 한 2만단장 만들기 성장에 기여할 교무님들 인사이동도 중지하고 그 아이템이 성공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2) 교무 훈련도 2만단장과 함께 공부분위기 어떻게 열어 갈까?로 도전하면 좋겠다
- 3) 대사회불공과 마음공부프로젝트를 단별 특징으로 기점을 잡고 특성 있는 교화단 운영을 하면 좋겠다.
- 4) 언제나 실패는 교화자의 나태심과 열정부족 부정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언제나 성공은 나의 열정어린 참여와 수양된 인격과 세련된 프로그램과 감동. 배려에서 시작되었다.
- 5) 나는 언제나 꿈꾼다.
  - 나로 인해 친구는 없어도 좋다 그러나 나로 인한 정법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지고 마음공부로 행복해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보은의 기점으로 잡는다.
  - 그러다 보면 나의 심우 심사들이 많아질 것이 아닌가?

# ■ 교화단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분석

**최 정 운 교무**

▷ 원불교 교화연구소



# 교회단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분석

최정윤교무(원불교교회연구소)



## 교 화 단 현황파악을 위한 설문분석

교회연구소 최정윤

## 조사 대상 및 내용

### ☞ 교무용

- 교화단 조단 및 평가
- 교화단 운영 및 관리
- 단장훈련 현황 및 요구조사

### ☞ 단장용

- 일반적 특성
- 교화단 현황
- 단장의 역할수행 정도

## 조사 방법

- ☞ 설문지 우편 조사 실시

## 조사 진행

### ☞ 조사 기간

- 설문지 배포(95년 7월 26일)
- 회수 기간(95년 7월 26일 ~ 8월 30일까지)

### ☞ 설문지 회수

- 교무용 164부
- 단장용 1259부



## 최근 5년간 교화단원 수

일반 교화단원 수는 92년보다 3,267명 감소  
 청년 교화단원 수는 92년보다 318명 증가

범회구분 (교구별)	일반	청년	대학생	학생	어린이	기타	합계
원기 95년	38,929	3,189	107	3,452	4,354	294	50,325
원기 94년	42,951	4,165	31	3,370	5,180	307	56,004
원기 93년	42,873	3,674	41	2,805	4,251	151	53,795
원기 92년	42,196	2,871	36	2,141	3,284	149	50,677
원기 91년	30,375	1,669	1	983	1,743	49	34,820



## 교회단 운영 및 관리현황 분석결과

교회단 단회 시 교무님 참석이 어렵다

구 분	문항내용	응답률(%)
단 회	매 월 정기적 단회 실시	78.7
	단회 시 교무님 참석 정도	40.3
	교회단 마음공부교재활용	85

# 교회단 운영 및 관리현황 분석결과

## 단회진행을 위한 사전 교육 미흡

구 분	문항내용	응답률(%)
교육 및 관리	단회 진행자 사전 교육 실시	42.7
	매 월 정기적 전체 단장 관리	51.8
	단장이 각 단원 관리	60.4











## 단장단 훈련 현황 분석결과

교화성장조직을 위한 단장단 훈련 필요

구 분	문항내용	응답률(%)
단장단 훈련	단원의 공부사업지도 위한 훈련	36
의 지	교화단이 교화성장 조직이라는 의지	82.3

## 단장훈련 요구조사 분석결과

교회성장조직을 위한 교화단 단장 훈련이 필요하다

구 분	문항내용	응답률(%)
단장단 훈련	단원의 공부사업지도 위한 훈련	36
의 지	교화단이 교회성장 조직이라는 의지	82.3



## 단회와 단장훈련간의 상관관계

단회와 단장훈련간의 상관계수는 높게 나타났다.

	단회	교육및관리	단장이 단원공부사업에 지도가능하도록 단장단 훈련	다양하고 활발한교회단활성이교회성장에 도움	교회단운영관리	단장훈련	단장훈련 필요성	의지	단장훈련전체
단회	1								
교육및관리	.448**	1							
단장이 단원공부사업에 지도가능하도록 단장단 훈련	.249**	.607**	1						
다양하고 활발한교회단활동이교회성장에 도움	.214**	.243**	.141	1					
교회단운영관리	.768**	.886**	.645**	.404**	1				
단장훈련	.322**	.624**	.534**	.427**	.643**	1			
단장훈련필요성	.291**	.251**	.158*	.282**	.337**	.347**	1		
의지	.307**	.322**	.163*	.435**	.406**	.427**	.775**	1	
단장훈련전체	.365**	.452**	.318**	.440**	.532**	.664**	.903**	.891**	1

## 일원배치분산 분석 결과

단장훈련은 단회 및 교회단 활동이 적을수록 필요하다.

✎ 50점 미만에서

- 단회, 교육 및 관리, 단원의 공부사업 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훈련, 교회단운영에 있어서  $P < .001$  유의도가 있다.
- 교회단활동이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P < 0.05$  유의도가 있다

✎ 50점 미만에서

단장훈련전체에 대하여  $P < .001$  유의도가 있다.

## 교차분석 결과

십인일단 단 구성,  
 매월 단장훈련(사전교육),  
 상시일기 실행 권장,  
 신앙수행이 재미와 기쁨으로

- ① 단원수와 단회 ?법회 출석수 ?단회실시횟수  
 (10명미만에서 높다.)
- ② 단회실시횟수와 단회진행자  
 (매월 단장진행이 높다.)
- ③ 교화단마음공부 교재활용과 상시일기 실행자수  
 (5명미만이 높다.)
- ④ 단회보고서 제출자와 사종의무 이행자  
 (매월 보고서 제출자 중 조석심고가 높다.)

## 교화단 단장의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번	내용	빈도
1	직장, 건강, 집안일 등 개인적인 일 때문에 <b>단회시간 맞추기가 힘든</b> 분이 많다.	42
2	교당에 잘 나오지 않는 <b>교도</b> 를 정성스럽게 꾸준히 <b>챙기고, 인도하는 것이 어렵다.</b> (교무님께서 가끔 연락해주시면 효과적인 것 같다.)	25
3	단원들이 교리이해를 잘 못한다. <b>교리공부 및 원불교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단원들이 교화단이나 교당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b> 해야 교화단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0
4	교도님들이 노인 교도인 관계로 별도 교화단회를 하지 못한다. (건강상의 문제/ <b>노령화된 농촌교당에 맞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b> 인쇄물 역시 노인이 보기 편한 글자 크기로 조정되었으면 한다.)	17
5	입교만 해놓고 교당에 오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 <b>단원들의 법회 출석을 생활화</b> 할 수 있는 교당 운영이 요구됩니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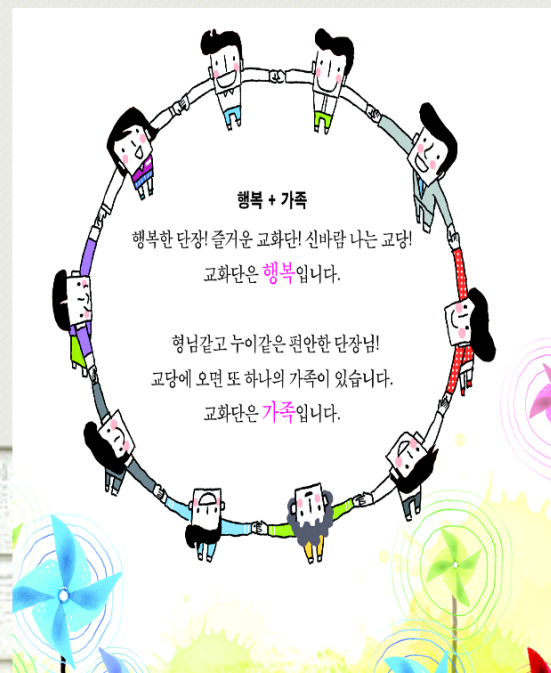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 교화단은 시방세계 일체생령이 행복한 길

✎ 분석은 과거의 데이터이고  
미래는 스스로가  
어떤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교화단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교화단이 성장하면  
시방세계 일체 생령이다  
행복해집니다.





대중사 앞으로 시방세계(十方世界)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십인일단(十人一團)의  
단 조직 방법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서품 6장)

**감사합니다!!!**

# ■ 단을 통한 교화활성화 방안

= 불법연구회 단 활동 중심으로 =

## 장 진 수 교무

▷ 원불교 사상연구원



# 단을 통한 교화활성화 방안(불법연구회 단활동 중심으로)

장진수교무(원불교사상연구원)

## I. 들어가며

### II. 불법연구회 시대의 단에 대한 고찰

1. 불법연구회 시대의 단의 변천 과정
2. 단회(團會)의 주요 활동
3. 원기 20년(1935)이후 교화단

### III. 나가며 - 미래교화단에 대한 단상

## <참고문헌 >

## I. 들어가며

소태산 대종사(少太山朴重彬, 1981-1943, 이하 대종사) 재세 28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대종사는 영산 시대에 이미 최초의 교화단(敎化團)<sup>1)</sup>을 통하여 교단 창립의 경제적·정신적 기초가 되는 방언공사(防堰工事)와 법인성사(法認聖事) 등을 이루었으며, 변산 시대에는 모든 교법을 초안하고, 이를 교화단을 통하여 그 참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후 대종사는 불법연구회 시대 전 기간을 걸쳐면서 교화단 실현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그는 교화단 조직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교법을 제정하고 실행하였고 다시 개정하기를 수 차례 반복하였다.

그러나 교화단은 대종사의 열반<sup>2)</sup>과 교화단 조직을 위협시하여 금지<sup>3)</sup>케 했던 당시 일

1) 교화단(敎化團)이란 표현은 원불교 교단 초기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교화단이란 표현은 원기 27년(1942)에 불법연구회 시대의 마지막 회규(會規)에 공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행 「원불교교헌(圓佛敎敎憲)」에서는 원불교의 '교화(敎化)와 통치(統治)의 양면의 원활(圓滑)을 기하기 위해 십인일단의 교화단을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 '단(團)'은 교화단과 구분 없이 사용하고자 한다.

2) 원기 28년(1943) 6월 1일.

3) 원기 30년(1945). 「원불교교사」 2편 5장 1절, 위의 책, 1102쪽. 日帝하 교단의 수난은 방언공사가 있던 원기 4년(1919)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少太山 재세기간 내내 진행되었다. 다만, 1935년 민족 지도자인 도산 안창호의 총부 방문을 계기로 원기 21년(1936) 10월, 총부 구내에 복일 주재소가 설치되고 두 명의 순사가 파견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박용덕, 『초기교단사 5권:천하농판』, (익산:동남풍, 1999), 220-225쪽.

제 치하의 급박한 시국 상황과 계속되는 해방과 한국전쟁 등의 이유로 그 역할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채 그 명맥만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대중사의 법통을 이어 2대 종법사에 오른 정산종사(鼎山 宋奎, 1910-1962)는 원기 39년(1954) 4월 “수위단회의 위신과 직능을 더욱 강화하여 교단 통치의 핵심체를 삼으며 각 교당에서는 교화단 조직을 강화하여 이로써 공부 사업 촉진의 기관을 삼는다면 사반공배의 좋은 결과를 얻게<sup>4)</sup> 되리라 하여 이단치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뒤이어 종법사에 오른 대산종사(大山 金大舉, 1914-1998)도 원기 47년(1962) 2월 취임사 중에 이미 이단치교(以團治教)와 법치교단(法治教團)을 공약(公約)하였으며, 원기 77년(1992) 새해 아침 법문으로 “이제는 한 사람이 이려고 저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고 법치교단 이단치교의 시대다. 우리 교단은 법치교단 이단치교하는 교단으로 이는 수위단회의 강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강령이니 법치교단 이단치교를 생명으로 알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교운의 시대요, 교운의 시대는 바로 대중사님의 일원화 시대다. 이는 일원주의와 대세계주의의 역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중사님의 교화 이념을 담은 교화단 조직으로 이 교단을 운영해 가야 할 것이다.”<sup>5)</sup>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지난 원기 76년(1991) 「교화단 규정」이 전면 개정되면서 출가교화단의 사무가 교화부에서 수위단회사무처로 이관되고, 원기 79년(1994)에 좌산상사(左山 李廣淨, 1936- ) 시대가 열리면서 이단치교의 역대 종법사의 일관된 경륜 실현은 더욱 가속화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원기 84년(1999) 교헌 개정에서는 교정의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에 대한 권한을 기존의 교무회의 대신 출가교화단회에 일임하였으며, 예비교역자 교육 과정에서도 ‘교화단회를 알차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sup>6)</sup>’을 갖추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십인일단(十人一團)의 단(團) 조직이 형성되고 변천되는 과정과 그 교화단을 통하여 진행되었던 주요 활동을 원불교 초기 교단, 특히 소태산 대중사 재세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소태산 대중사와 역대 종법사의 이단치교와 법치교단의 경륜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하고 이를 교화단을 통하여 바르게 실현해 나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불법연구회 시대의 단에 대한 고찰

원기 9년(1924) 6월 1일, 창립총회를 열어 종래의 기성 조합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불법연구회>라는 임시 교명으로 새 회상을 내외에 공개하였다. 창립총회 때 총 6장 22조의 규약<sup>7)</sup>이 임시로 채택되고 9월에 총부 기지가 확정되고, 전무출신<sup>8)</sup>의 공동생활

4) ‘教化團과 聖意’, 『출가교화단보』 2호(원기 77년 4월 1일), 2면

5) 『출가교화단보』 창간호 1면.

6) 『예비교역자가 달성해야 할 교육수준』, 법무실, 1999. 3쪽. 그 내용은 “1. 갑종 전무출신의 정신 수준, 2. 교화단회를 알차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 3. 설교와 심고 기도의 높은 구사력을 갖춘 수준”이며, “예비교역자의 교육에서 이상 세 가지 수준에 도달하면 우리 교화의 미래는 한량없이 밝게 열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7) 『불법연구회 규약』은 불법연구회 최초의 교서로서 창립총회 당시 임시 인쇄된 바 있었으나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여 원기 11년 11월 1일 제4회 평의회에서 新 규약으로 개정 통과되어 원기 12년 3월에 그 초판이 발행된다. 박용덕, 『원불교초기교단사 5권:천하농판』, 앞의 책, 181-182쪽. 불법연구회 창립의 취지와 규약이 실려 있

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후 20여년에 걸친 불법연구회 시대<sup>9)</sup>는 교단 초기의 가난한 살림과 일제하의 민족적 수난 속에서도 대중사를 중심으로 신앙과 수행, 공부와 사업,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지상 낙원의 모범적 공동체를 실현하였다.

이 시기에 단 중심의 조직 활동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4차례 이상의 새로운 조단(組團)과 단법(團法) 및 단규의 제정과 개정이 진행되었다. 훈련법, 일기법, 신분검사법, 학력고시법, 학위등급법, 사업고시법 등 각종 법규가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이를 정리한 각종 초기교서가 발행되었다.

이 시기의 단의 활동은 단회(團會)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활동 내용도 또한 농업부와 인재양성소 창립의 자금 마련과 단법에 대한 강습과, 의견제출 및 심의, 일기법을 통한 단원의 성적조사 등이었다.

여기서는 교화단의 변천과정과 단회를 통한 주요 활동을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당시 지방(경성, 영광, 신흥, 부산 등)에서도 꾸준히 단회를 진행하였으나 익산 본관에서 단활동을 통합 관리했고 모든 의견 및 단금수합이 익산 본관을 중심으로 집결되므로<sup>10)</sup> 여기서는 익산의 단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불법연구회 시대의 단의 변천 과정

불법연구회 시대에는 조단(組團)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적어도 4차례 이상의 조단<sup>11)</sup>이 소태산 대중사에 의해 직접 단행되었으며, 4차에 걸친 수위단 조직위원회가 실시되고 있으며, 「단규」에 대한 수정 작업<sup>12)</sup>도 2차례 이상 진행되었다.

### 1) 수위단(首位團) 조직의 변천

수위단이 처음 조직되기는 원기 2년(1917)년 9월 12일이었으나 변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활동이 유보되었다가 창립총회를 끝내고, 원기 10년(1924) 4월 26일 남자수위단

다. 이하 「趣旨規約」.

8) 「원불교교사」 2편 1장 2절, 앞의 책, 1068쪽. 당년 교세는 영산 신흥 김제 전주 부안 서울 진안 각지의 회원 130여명(여 70여명, 남 60여명)이었고, 전무출신은 13명이었다. 13명은 김광선, 오창건, 이동안, 이준경, 송규, 송도성, 전음광, 송만경, 문정규, 김남천, 송적벽, 조갑중, 이원화였다. 앞의 책, 1159쪽.

9) 이 시기는 창립총회가 있던 원기 9년부터 대중사가 열반한 해인 원기 28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영산, 변산 시대에 비추어 익산 시대라 할 수 있으나, 익산은 현재도 총부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시 會名을 참고하여 '불법연구회 시대'라 하였다.

10) 방길튼, 「불법연구회시대의 단회에 대한 고찰」, (이리:원광대학교 학위논문, 1994), 2쪽

11) 1회 조단은 원기 13년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보이며, 2회 조단은 원기 13년(1928) 9월 22일, 3회 조단은 원기 15년(1930) 2월 1일(음) 착수에 들어간다. 이후에도 「통치조단규약」 발행 전후에 대중사 친히 조단에 착수하여 조직 개편을 진행하였으며, 여자 시보단이 결성되었다 중단된 점이라든지 계속해서 신입단원이 늘어난 점을 들어 크고 작은 조단이 계속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2) 일찍이 「조단법(組團法)」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월말통신 1,2호」에 「단원성적조사법(團員成績調查法)」, 「단원조사법상시(團員調查法詳示)」 등이 소개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이 시기에 단규(團規)에 바탕한 단 운영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원기 13년(1928) 9월 9일 예회때 개정된 「단규원세칙(團規原細則)」(이하 「新團規」)이 공표된다. 이후 다시 원기 15년부터 새 「단규」편찬에 들어가 원기 16년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佛法研究會統治組團規約)』(이하 「통치조단규약」)을 발행하게 된다.

1차 보결(補缺) 및 대리(代理) 조단을 거행하였다. 대종사는 먼저 9인 제자 중 전무출신을 하지 못한 3인의 대리단원으로 소년 전무출신 송도성, 전음광, 조갑종을 내정하였다.<sup>13)</sup> 이후 원기 11년(1925) 손방(巽方) 단원인 박세철이 열반함에 따라 이동안을 보결단원으로 선임하였다.

다만 원기 16년(1931)까지는 수위단의 구체적인 활동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때까지 진행된 세 차례의 조단에서도 하위단이 수위단과 직접 연결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원기 16년(1931) 2월에 대종사는 직접 4차 조단을 착수할 때, 수위단에 대한 많은 변화가 시도되었다. 남녀별 조직과 갑·을·병 3종의 예비수위단이 조직되었으며, 7월에 발행된 『통치조단규약』에서 이를 다시 명시하고 남녀 각 1단으로 구성된 정수위단(正首位團)을 ‘본단(本團 통치기관)의 목적을 총감’하고 ‘모든 단의 원시(元始)’<sup>14)</sup>로 규정하였다. 실제로 3월엔 여자수위단 시보단이 처음 조직<sup>15)</sup>되기도 하였다. 회의도 기존의 단원회(團員會)와 단장회(團長會)와는 별도로 매월 음력 16일 정수위단회(正首位團會)가 따로 실시되었다.

이후 총 4차례 이상의 보결 조단이 있다. 제1회 남자수위단 조직위원회는 원기 20년(1935) 9월 10일에 간방(良方) 김기천 단원의 열반으로 유허일, 제2회에서 원기 24년(1939) 태방(兌方) 김광선 보결에 박대완, 제3회에서 원기 26년(1941)에는 손방(巽方) 이동안 보결에 서대원, 28년(1943)에는 서대원 보결에 이완철 등이다.<sup>16)</sup>

대종사는 수 차례에 걸친 대리 및 보결 조단을 보면, 실제 왕성한 활동 중에 있던 인물을 중심으로 수위단을 구성하였다. 수위단은 일체 생령을 다 구원할 새 회상의 머리이자 구심이기에 지방세계를 응함에 있어서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빈 자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수위단은 그 위상을 높여간다. 원기 27년(1942) 발행된 불법연구회 시대 최종 『불법연구회회규』(이하 『회규』)에서는 수위단을 중법사를 보좌하는 최고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자격도 법강항마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생존인 법강항마위 사정이 진행된 적이 없던 당시으로써는 파격적인 규정이었다.<sup>17)</sup> 다만 창립기한 중에는 법마상전급인<sup>18)</sup>도 피선거 자격을 가지도록 하였다.

13) 당시 송도성(1907-1946)은 곤방(坎方) 이순순의 대리로 19세, 전음광(1909-1960)은 리방(離方) 박동국의 대리로 17세, 조갑종(1905-1971)은 곤방(坤方) 유건의 대리로 21세였다.

14)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 『원불교고교총간 4권』, 앞의 책, 51쪽

15) 대종사는 익산에서 여자수위단 시보단을 조직하여 특별기도를 행하게 하다가 이를 중지하고 뒤로 미루었다. 당시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단장 소태산, 건방 이동진화, 곤방 장적조, 간방 최도화, 진방 양하운, 손방 전삼삼, 이방 이청춘, 곤방 정세월, 태방 박사시화, 중앙 이공주. 『원불교72년총람 I』, (이리:원불교창립2대 및 대종사탄생 백주년 성업봉찬회, 1991), 133쪽. 대종사는 열반을 한 달여 앞둔 원기 28년(1943) 4월 29일에는 여자수위단을 정식으로 다시 조직하고 실무가 불능한 단원의 대리까지 내정하였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대리단원. 단장 소태산, 건방 박사시화(김영신), 곤방 장적조(조전권), 간방 최도화(조일관), 진방 이원화(서대인), 손방 이청춘(오종태), 이방 이동진화, 곤방 정세월, 태방 황정신행, 중앙 이공주. 여자수위단이 실무로 발족하게 된 원기 30년(1945) 1월 25일에 가서 이루어진다. 『원불교72년총람 I』, 앞의 책, 134쪽

16) 「역대수위단보」, 『원불교고교총간 6권: 각향자료집』, (익산:원불교출판사, 1994), 11쪽. 이 기록에 의하면 제1차 보결조단이 원기 10년(1925) 4월 26일에 이루어졌다. 이때 3인의 대리단원을 선정하고, 오산 박세철의 보결로 이동안을 시보로 세워 원기 20년(1935)에 이들을 정식 보결원, 정식 대리단원으로 인증하고 그 보결 및 대리 선정식은 원기 24년(1939)에 치워졌다. 그러나 손방(巽方) 박세철은 뒤늦게 전무출신하여 1년여 근무하다가 원기 11년(1926) 8월26에 열반하므로 보결은 이후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결단원 시보(試補)로 선정된 이동안은 만 6년간 시험기를 거쳐 원기 20년 정식 보결원이 되었다.

## 2) 원기 13년까지의 조단과 양 연합단 사업가담

원기 13년(1928) 음력 4월 2일 제5회 전무출신실행단이 조직<sup>19)</sup>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전에 이미 조단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불법연구회는 창립당시 130여명의 회원(전무출신 13명)에서 4년 사이에 무려 200여명이 증가한 373명(전무출신 22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회원을 포함한 조단이 숨가쁘게 진행되었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당시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출회(黜會)가 단행되기도 하였는데, 원기 11년에 13인<sup>20)</sup>, 원기 13년에 40인<sup>21)</sup>이 제명되는 등 단원의 변동이 심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안정된 단 활동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농업부기성연합단(農業部期成聯合團)’, ‘인재양성소기성연합단(人材養成所期成聯合團)’<sup>22)</sup>이 원기 12년(1927) 송만경과 송도성의 의견제출<sup>23)</sup>에 따라 원기 13년(1928) 4월에 ‘농업부창립연합단’, ‘인재양성소창립연합단’으로 정식 발족하게 된다. 이어서 제1대 제1회<sup>24)</sup> 기념총회에서 창립한도 제2회의 사업진행 계획 9건이 통과되는데, 그 중 ‘농업부 설립의 건, 인재양성소 설립의 건’이 포함되고, 그 사업진행 계획 표준에 대한 내용 설명에서 농업부 창립의 방법은 송만경의 발기로 ‘제2회 전무출신실행단’이 담당하여 창립한도 10년내의 1만원의 자본금을 적립한 후 설립할 것을 통과하였고, 인재양성소 설립은 송도성의 발기로 ‘제1회 전무출신실행단’이 그 창립을 담당할 한 일을 통과하였다.<sup>25)</sup>

이후 각 단이 연합하여 농업부창립연합단과 인재양성소창립연합단의 양 사업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후 사업목표별로 인원을 나누게 되었다.<sup>26)</sup>

당시 사업가담표(事業加擔表)<sup>27)</sup>를 보면 원기 13년(1928) 8월 현재, 농업부창립연합단에는 총 9개단 79명이 가담하고 있고, 인재양성소창립연합단에는 총 3개단, 27명이 가담

17) 소태산 대종사 당시에는 공식적으로는 원기 13년과 원기 16년 2차례의 범위사정이 있었을 뿐이다. 이 당시에는 생존 법강함마위 사정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예비학력고시법의 시행을 통하여 정기훈련의 결과인, 수양연구취사의 학력을 고시하는 방식을 통해 범위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8) 원기 16년 2차 범위사정에서 예비범마상진급 승급자는 모두 7인으로 송도성, 김기천, 전음광, 이동진화, 이공주, 송벽조 등이었다. 그 외 정식특신부 54인 등으로 3년에 한 번씩 범위사정이 계속 있었다면 이들에게도 수위단 피선거자격이 주어졌을 것이다.

19) 「월말통신 1호」 제5회 전무출신실행단의 조직, 『원불교교고총간 제1권』, (익산:원불교출판사, 1994), 11-12쪽. 제5회 실행단은 사업표준으로 인재양성소 설립에 협력한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 단은 농업원 및 농공단원에서 청소년 예기(銳氣)많은 회우(會友)로만 성립된 바이니 실로 본회의 희망단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20) 「제3회 평의원회회의록」, 『원불교교고총간 제6권』(익산:원불교출판사, 1994), 181쪽.

21) 「제6회 평의원회회의록」, 위의 책, 184쪽.

22) 농업부기성연합단은 이후 농업부창립연합단, 산업부창립단 등으로 명칭이 변하고 있다. 인재양성소기성연합단은 인재양성소창립연합단, 인재양성부창립단, 육영부창립단 등으로 변화된다.

23) 원기 17년(1932) 7월(음)에 발표된 의견총수발표를 보면, 송만경이 제안했던 의견은 元번호 2번 사업방면 2번, 실행담임부는 中止로 되어 있다. 송도성이 의견은 元번호 3번, 사업방면 3번, 실행담임부는 인재양성부로 되어 있다. 「월보38호」, 앞의 책, 349-350쪽.

24) 대종사는 원기 3년(1918) 10월(음)에 일찍이 새 회상의 창립한도(創立限度)를 발표한 바 있는데, 1대(代)를 36년으로 하고, 다시 36년을 다시 3회(回)로 나누고 있다. 「원불교교사」 1편 3장 5절, 앞의 책, 1047쪽.

25) 불법연구회 제1회 12년간 제1회 정기총회록, 『원불교교고총간 제6권』, 184쪽

26) 「월말통신 4호」, 양 연합단의 진행방침토의, 앞의 책, 24쪽. 원기 13년(1928) 8월 6·7일 이들에 걸쳐 양 연합단의 기금마련을 위한 수입방법에 있어서 그 수입범위를 전 회중(會中)으로 할 것인지 대하여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27) 「월말통신 제4호」 사업가담표, 『원불교자료총서 I』(영인본, 이리:원불교출판사, 1984), 113-114쪽

하고 있다.<sup>28)</sup>

이처럼 의견제출<sup>29)</sup>을 통해 제안된 의견이 회중의 중요한 사업으로 결정되고 이미 결성되고 있던 단은 연합단을 구성하여 그 사업에 가담하는 모습이였다. 양 연합단의 사업은 이후 교단의 주요 사업으로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그 바탕에 십인일단의 단과 매달 정례화된 단회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 의견제출이나 단원성적조사법 등의 이후 단회의 주요 활동 내용들이 시도되고 있었다.

### 3) 교화단과 훈련

이단치교의 교화단 조직의 원리가 그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최초 단원이 다시 9인의 단원을 거느릴 수 있는 철저한 훈련을 필요로 하였다.<sup>30)</sup> 이는 중간지도자가 최고지도자(총단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단원을 지도 감독하는 동시에 최고지도자의 지도방침을 보좌하는 일을 담당하기 때문이다.<sup>31)</sup>

소태산 대종사는 처음부터 교화단 조직원리에 입각하여 9인 제자를 선정하고 철저한 훈련을 시켜왔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시 9인의 단원을 지도할 만한 중간지도자인 단장을 훈련시키지 못한 상태였다. 불법연구회 창립이후에 조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0인으로 1단을 하지 않고 9인으로 한 단을 구성했으며<sup>32)</sup>, 단장없이 중앙대표(中央代表)<sup>33)</sup>를 두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때는 아직 상위단(上位團)도 구성되지 못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변산 시대에 조단 시험을 중지한 적이 있다. 단장의 수준이 고르지 못하여 단원들의 통치(統治)가 귀일(歸一)하지 못한 점이 그 이유였다. 단 조직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장과 단원들의 체계적인 훈련이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원기 9년(1925) 회상 창립을 일단락 하자마자 소태산 대종사는 곧 만덕산에 입산하여 한 달 가량 훈련(禪)을 나고 이듬해 4월 새 교법을 지도 훈련하기 위하여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제정 발표하였다.<sup>34)</sup> 동하 양기의 정기훈련<sup>35)</sup>을 통하여는 수양과 · 연

28) 농업부창립연합단은 전무출신 2회실행단, 4회실행단, 4회기성단, 19회, 23회, 26회, 29회, 30회, 32회 보통단 등 총 9개단은 단장을 제외한 9명이고, 전무출신 제4회기성단만 7명으로 총 79명이 가담하고 있었다. 인재양성 소창립연합단은 전무출신 1회실행단, 5회실행단, 거진출진제1회단 등 모두 3개단 27명이다.

29) 원기 11년(1926) 8월 23일(음력 7월 26일)에 처음 실시된다. 『월보38호』, 의견제출총수, 앞의 책, 349쪽.

30) 서경진, 『원불교 교화이념 형성의 연구』, (이리: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210쪽

31) 이성은, 「조직제도변천사」, 『원불교70년정신사』, (이리:원불교창립제2대 및 대종사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 1989), 433쪽

32) 원불교정화사 편, 「월말통신 제4호」 사업가담표, 『원불교자료총서 I』, 앞의 책, 113-114쪽. 각 단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3) 4월 2일(양력 5월 20일)에 농공부 박대완씨를 중앙대표로 하여, 정일성, 이호춘, 송봉환, 권대호, 박노신, 김병철, 성경철, 전중환 등 8인의 실행단 가입신청서(加入申請書)를 수리하여 4월 6일(양력 5월 24일) 오전 8시에 예식을 거행하였다. 『월말통신 1호』 제5회 전무출신실행단의 조직, 『원불교교고총간 제1권』, 앞의 책, 11-12쪽.

34) 소태산 대종사 계속해서 법을 제정하였다. 곧이어 10월엔 학력고시법, 학위등급법, 사업고시법 등이 발표되고, 원기 12년(1927) 2월 유공인대우법, 3월엔 신분검사법 등이 발표된다.

35) 제1회 정기훈련(乙丑夏禪)을 원기 10년 음력 5월 6일부터 3개월간 송규의 지도로, 제2회 정기훈련(乙丑冬禪)을 음력 11월 6일부터 3개월간 이춘풍의 지도로 진행하게 된다. 이후 少太山 열반전인 원기 28년(1943) 하선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며, 그 정기훈련 기간도 확인가능한 원기 24년(1940) 동선까지 3개월의 기간

구과·취사과의 공부 정도를 학력고시법(學力考試法)을 통해 그 근기별로 철저히 점검하여 곧바로 실질적인 범위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시훈련을 통하여 유무념(有無念) 조사와 단원매월매일일기조사법(이후 일기조사법)으로 실질적으로 대조 연습하게 하였고, ‘특히 일기 조사법은 매일 공부의 실행 여부만 조사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육신·물질의 삼방면으로 헤시 혜수한 것도 대조 기재하며, 공부·사업·생활 삼방면의 의견 제출과 삼십 계문의 범과 유무도 대조 기재하되, 이 공부를 달로 검사하기 위하여 매월 단장 조사법을 정하고, 해로 검사하기 위하여 매년 교무부 보고법을 정하여, 유무식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근기를 따라 바로 정법에 들게 하는 훈련의 강령이 되었다.’<sup>36)</sup>

이처럼 단과 훈련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단은 사실상 상시훈련, 정기훈련의 관리를 위한 단위 조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마련된 것이 단 조직이요, 단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시훈련과 정기훈련이 불가결의 요소가 된다.<sup>37)</sup>

이러한 교법의 제정은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의 내용 속에 이미 준비된 것이라 하겠지만, 이단치교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위의 서로 다른 여러 교법이 단의 조직을 통해서 참된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였으며, 단 조직이 발전됨에 따라 교법도 끊임없이 새롭게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 4) 신단규(新團規)와 제2회 조단(組團)<sup>38)</sup>

소태산 대종사는 기존 교화단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단장을 포함한 십인일단 원칙과 상위단과 하위단의 조직 연계를 시도하였다. 원기 13년(1928) 음력 7월 1일부터 단규원세칙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음력 7월 26일<sup>39)</sup> 새롭게 개정된 「신단규」가 예회때 공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sup>40)</sup> 원칙 8개조, 각 단 내역 5개조, 예식 거행 및 절부·단증 분급 내역 6개조, 단원의 의무 4개조, 별부 4개조, 단장의 의무 5개조를 증보하고, 세칙에 있어서는 염불·좌선·교과서연습·취사실행·정신근고·육신근고·전곡헤시·의견제출 등의 내역과 각 조의 조사방법을 제정하고 각 단원 예회순서 5개조, 단원주의사항 9개조, 본회창립요론 11개조, 단원매일일기실경 기재 범례 등을 제정 혹 개선하고 단원매월매일 성적조사표, 매년매월성적조사표를 획제하였다.<sup>41)</sup>

곧이어 소태산 대종사는 「신단규」에 따라 기존의 모든 단을 해체하고 개조하여 불법연

을 정확히 지키고 있다. 양건모, 「초기교단의 정기훈련에 대한 고찰」, (이리:원광대학교 학위논문, 1994), 7-10쪽.

36) 「원불교교사」 2편 1장 4절, 앞의 책, 1071쪽.

37) 서경진, 앞의 책, 220쪽

38) 「시창 14년도 사업보고서」, 『원불교교고총간 제5권』, 앞의 책, 89쪽. 사실상 최초 조단은 원기 2년에 이루어졌지만 중간에 그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는 점과 수위단 이하의 단에 대한 조직은 불법연구회시기에 와서 새롭게 조단이 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불법연구회 제1회 조단은 원기 9년에서 13년 4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9) 양력 9월 9일.

40)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기 16년 발행된 「통치조단규약」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41) 「시창 13년도 사업보고서」, 5. 교육통일기관의 정관, 『원불교교고총간 제5권』, 앞의 책, 59쪽

구회시대 제2회 조단을 단행한다. 조단 단행의 이유는 지방별 거리상의 문제와 단장의 부재를 들고 이를 개선하여 각 지방의 편의를 따라 각 단을 다시 조성하고 단장을 임명하여 음력 8월 6일 발표하였다.<sup>42)</sup> 제2회 조단으로 전무출신실행단 4, 전무출신기성단 2, 거진출진단 1, 보통단 22, 합 29개단이요 향장(尙長) 3인과 각장(角長) 29인이 출현하였다.<sup>43)</sup>

이때는 모든 단이 기존의 양 연합단 사업에 나누어 가담하게 되는데, ‘농업부창립’사업에 가담한 단은 실행단 2, 기성단 1, 거진출진단 1, 보통단 13으로 합 17개 단이며, ‘인재양성소창립’사업에 가담한 단은 실행단 2, 기성단 1, 보통단 9로 합 12개 단이었다.<sup>44)</sup>

## 5) 단회(團會)의 변천

기록상 단회는 제1대 제2회중 2번째 예회날인 원기 13년(1928) 음력 4월 16일<sup>45)</sup>에 ‘단원회(團員會)’란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다. 이 날 단원회는 오후 8시에 열리게 되었는데, 당시 원칙에는 ‘오후 2시에 개회하고 4시까지’ 하는 것으로 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sup>46)</sup> 이전에 이미 단회가 일정한 원칙에 의해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날 대중사는 기존의 각 단의 공통 참회를 폐지하고 사업목표가 동일한 단끼리만 회집하여 단회를 진행하게 하였다.<sup>47)</sup> 이때부터 양 연합단별로 단회가 진행되었다. 「신단규」가 발표되고 제2회 조단이 있는 후, 음력 10월부터는 ‘단장회(團長會)’가 발족되어 매월 음력 10일에 실시하게 되었다.<sup>48)</sup>

한편 10월 단회<sup>49)</sup>에서부터는 「신단규」에 따라 오전·오후 전부 단회를 보게 되었으며, 이 날 익산 본관에서는 정식으로 단원매일조사법실행 결제식을 가졌다.<sup>50)</sup> 이후 단회는 오전부에는 양 단이 합석하여 단규에 대한 강습이 진행되었으며, 오후부에는 양단이 분석(分席)하여 취지설명(趣旨說明), 단금수합(團金收合), 의견제출(意見提出), 단원성적조사(團員成績調査) 등의 활동이 있었다.<sup>51)</sup>

다만 원기 19년(1934) 음력 6월 11일부터는 3·6예회가 양력 일요일 예회로 전환되면서 둘째주 일요일에 기존처럼 단회가 진행되었고 셋째주 일요일에 단원일기성적조사를

42) 「월말통신 제6호」 각 단의 해체 및 개조, 『원불교교고총간 제1권』, 앞의 책, 38쪽.

43) 「월말통신 제6호」 조직의 내용도해, 『원불교자료총서 I』, 앞의 책, 190-191쪽. 제1호 향장 송만경 아래 9각장 총 90명, 제2호 향장 김기천 아래 9각장 90명과 부속 2단 19명으로 총 109명, 제3호 향장 송규 아래 9각장 총 90명으로 총 단원은 향장 포함 292명이 된다.

44) 「월말통신 제6호」 사업가담표 도해, 위의 책, 193-194쪽.

45) 양력 6월 3일.

46) 「월말통신 제2호」 삼예회록, 앞의 책, 14쪽

47) 「월말통신 제2호」 앞의 책, 15쪽.

48) 단장회는 원기 15년(1930) 음력 1월, 제16회 단장회를 마지막으로 단원회와 합하여 매 16일 團會로 합병 거행하여, 이로써 단장회 개정(제3회 조단시 단장단을 새롭게 구성)의 元始가 된다. 「시창 14년도 사업보고서」 교무부처리요건, 앞의 책, 89쪽.

49) 음 10월 16일, 양 11월 27일

50) 少太山은 음력 9월 경, 경성에 머무는 동안 이공주의 惠施로 단원매일매일성적조사표를 인쇄하여 경성출장소에서 먼저 실시하였다. 이어 단장회가 있던 음력 10월 10일에 실시하기도 했다. 「월말통신 제7호」 광고, 『원불교교고총간 제1권』, 앞의 책, 44쪽.

51) 방길튼, 앞의 글, 8쪽.

실시하였다.<sup>52)</sup>

불법연구회 시대의 단회는 원기 22년(1937) 4월 25일까지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예회를 주로 오전에 마치게 되었고, 단회의 지속적인 활동도 또한 검증하기 어려우나 10개월 뒤인 원기 23년(1938) 2월 15일 단회를 행한 기록이 보이고 2년 후인 원기 25년(1940) 1월 14일 단회를 한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회보 64호」까지 ‘육영금 수합란’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원기 25년(1940) 4월 25일까지는 단회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sup>53)</sup>

## 6) 제3회 조단과 단장단의 구성

원기 13년(1928) 제2회 조단이 있는 후 단에 대한 이해와 통치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단무(團務) 훈련에 노력한 바, 그 의지(意旨)와 훈련 통치방법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으나, 구체적인 보급은 얻지 못한 상태<sup>54)</sup>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원기 15년(1930) 2월에 소태산 대종사는 친히 제3회 조단에 착수하였다. 이번 조단에는 단원의 그 동안의 성의 진퇴와 환경 변환을 따라 전무출신실행단 중에도 갑종(甲種)을 구분하여 조직하였다.<sup>55)</sup>

단의 종류는 전무출신실행단(갑종·을종), 거진출진단, 기성단, 보통단, 단장단(團長團) 등이었으며, 특히 단장단은 1, 2, 3, 4호 항장단(亢長團)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4호 항장단은 1단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교무부에서 직할하였다.

대종사는 이번 조단을 통해서 단장단을 새롭게 혁신하였다. 기존의 단장단은 항장(亢長)과 각장(角長)이 함께 구성되었다면, 이번 조단에서는 단장단(항장단)이 3단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이는 그 동안의 훈련법 시행과 단규에 대한 강습 등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일정한 능력을 갖춘 단장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당시 제2호 항장단 단장인 김기천에 의해 「단법찬미곡(團法讚美曲)」<sup>56)</sup>이 발표되기도 하는데,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는 이 곡은

52) 「회보 10호」 각지회합, 『원불교교고총간 제2권』, (이리:원불교출판사, 1994), 120-121쪽. 회보 9호 광고란에 예회일 변경일의 내용을 보면 매주 일요일 예회를 보는데, 둘째 일요일에는 단원회로 정하여 오전 오후를 다 보기로 하고 셋째 일요일은 오전은 예회, 오후는 각 단장이 단원의 일기성적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회보 9호」 광고, 위의 책, 99쪽

53) 방길튼, 앞의 글, 8쪽

54) ‘단기관의 진행상황을 지방별로 본다면 익산이 제1위, 경성이 제2위, 영광이 제3위요, 전주 진안 김제 등은 역시 동일한 상태로 微微’하였고, 日記는 ‘실시의 初임으로 철저한 이해를 가진 자 소수에 불과하나 각처를 통하여 16일 단회에 단원은 단장의 지도를 받게 되며 점차 보급의 途程’에 있었고, 다만 ‘有無念對照法 실시후 日記成績表가 발표되어 유무념대조자 3분의 2 이상이 일기조사를 하게’ 되었다. 「시창 14년도 사업보고서」 교무부 본년도사업진행결과의 상황, 앞의 책, 89쪽

55) 「시창 14년도 사업보고서」 교무부처무요건, 앞의 책, 89쪽.

56) 1장 簡易하고 널리미친 우리 團組織 한사람이 九人式만 지도해가면 억만세계 遺漏업시 교화하리라. 2장 회원이 入團하면 八方番號요 團長에 陸次하면 二十八宿로 단장이 단원되고 단원이 단장된다. 3장 단원의 九人은一體가 되고 단장의 一人은 精神이 되어 공부계와 사업계에 희생을 하세. 4장 節符와 團證으로 거기행하니 백절불굴 열열한 그 신성은 천지로 맹서코 일월로 보증해. (중략) 7장 보통단의 단원은 期成團준비 기성단의 단원은 實行團으로 실행단이 못되거든 居塵出塵團. (중략) 9장 매월에 16일은 우리 단회날 단장과 단원이 서로 모혀서 공부와 사업의 성적을 보네. 10장 공덕의 多少를 알고저하거든 惠受와 惠施를 計算하여 보고 삼방면의 意見을 對照하시요. 11장 삼대력의 진퇴를 알고저 하거든 六條와 三十戒를 조사해보고 교무부의 책임이 엇더한가 보오.

단법의 원리가 간명하고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미

주요 단원들의 단의 원리와 이념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골라지고 순숙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57)</sup>

이는 소태산 대종사의 사상과 경륜이 단장을 통하여 하위단에 빠짐없이 전해지고, 다시 각 단장이 하위단을 지도하고 각 단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로 전하는 상통하달(上通下達)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는 소태산 대종사의 신뢰가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 7)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과 제4회 조단

소태산 대종사는 제3회 조단을 마무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동안 시행한 조단의 경험과 자료를 종합한 새 「단규」를 완성할 뜻을 가지게 되었다. 원기 15년 10월 전음광에게 그 임무를 주어 영광에 보내어 정산과 함께 「단규」 편찬에 주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소태산 대종사의 친감(親勘)을 거쳐<sup>58)</sup>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sup>59)</sup>』이 발간되었다.

원기 16년(1931) 음력 2월엔 소태산 대종사는 수위단을 포함한 제4회 조단에 착수하였다. 전에 남녀 합조(合組)한 각 단을 전부 나누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조직하고, 이어서 남자정수위단내 무성의한 자를 대신하여 이미 내정되었던 3인의 대리인을 세우고 동시에 여자정수위단을 조직하고, 남녀 예비수위단도 갑·을·병 3종으로 구분<sup>60)</sup>하여 조직하였다.

그전까지는 교화단 조단 방식이 일정한 조직의 방향<sup>61)</sup>을 가졌다기 보다는 소태산 대종사가 직접 단을 해체 또는 개조하는 등 그 공력을 아홉 명에게 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 교화단을 다 책임지고 지도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단의 목적을 총감하는 정수위단을 두어 매월 16일엔 정기 정수위단회를 개최하고 각 단회에서 제출한 의견, 처리, 감각, 감상, 문목안과 기타 일체 안건을 정수위단원 반수 이상의 동의로 채용 여부를 결정한 후 본 총회 및 평의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단장회와

(중략) 13장 친절하고 존중하온 우리 단원들 忠告로 권면코 博愛 힘쓰세 세계의 평화난 우리 손으로. 「월말통신 34호」, 단법찬미곡, 앞의 책, 307쪽.

57) 당시 단회의 진행식순에 단원가(團員歌)가 포함되어 있는데, 「단법찬미곡」외에도, 「인재양성창립단가」(회보 2호), 「인재양성단가」(회보6호) 등이 보인다.

58) 원기 16년(1931) 음력 3월 7일경에 전음광의 수정한 전(前) 단규 원세칙을 일일이 친감(親勘)하여 완성하였으며, 21일엔 친제(親制)한 단장과 단원의 절부(節符)를 인쇄하였다. 「시창15년 사업보고서」, 『원불교교고총간 제5권』, 앞의 책, 103쪽.

59) 원기 16년(1931) 7월에 발행된 「통치조단규약」은 단규 원칙 14장 54조와 세칙 9조로 구성되며, 단규 원칙에는 단의 원리와 조직 구조, 단원 및 단장의 권리와 의무, 의견안 채용 등이 실려 있으며, 단규 세칙에는 공부와 사업방면에 단원으로 매일 일기조사법, 단장으로서 단원의 일기성적을 매일 조사하는 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 『원불교교고총간 4권』, 앞의 책, 50쪽.

60) 甲단은 전무출신 실행단 중에서 정남에 한하여, 乙단은 실행단의 기혼자 중에서, 丙단은 거진출진 중에서 각각 선출하도록 하였다. 조정중, 「이단치교에 관한 연구」, 『원광 66호』, (이리:원광사, 1969), 126쪽.

61) 단조직의 두 방향 중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는데, 상향식은 현 출가교화단처럼 더 확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람직하며, 하향식은 확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하다. 『예비교역자가 달성해야 할 교육수준』, (법무실, 1999), 20-21쪽.

단원회도 매월 한 차례씩 단장이 지정한 일자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통치조단규약』과 그에 따른 제4회 조단으로 비로소 단원회에서 단장회, 단장회에서 정수위단회로 연결되는 체제가 확보되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통치조단규약』 부칙에 ‘본 단규원세칙은 본회 창립한도 제3회 36년 이내에 수시 가감한다’하고 ‘본 단규를 가감할 때는 교무부 기초에 의하여 정수위단의 심의를 거쳐 종법사의 감정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sup>62)</sup> 이는 일찍이 소태산 대종사 스스로 구상하였던 십인일단의 교화단법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며, 아울러 창립 1대 36년 이전에 그 수정 보완도 완결하리라는 의지를 보여준다.

## 8) 통치기관으로서 교화단

이단치교<sup>63)</sup>는 한 마디로 단으로 교단을 통치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수위단에 의한 통치이고, 다른 하나는 이하 교화단에 의한 통치이다. 『통치조단규약』과 그에 따른 제4회 조단을 통해서 이단치교의 이 두 가지 방향이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수위단회가 매월 진행되었고, 『통치조단규약』에서 ‘본단(본회의 통치기관)의 목적을 총감<sup>64)</sup>’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시기에는 대종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수위단을 통한 통치’가 크게 필요하지도 않았을 뿐아니라 활발히 시행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다만 원기 27년(1942) 불법연구회 최종 『회규』에서 ‘종법사를 보좌하는 최고 기관으로 하고 종법사가 본회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일로 인정한 사항을 의결<sup>65)</sup>’하도록 하여 대종사의 열반을 1년 앞두고서야 수위단의 위상과 직능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졌을 뿐이다.

그리하여 이후 모든 이단치교의 초점은 바로 수위단의 위상과 직능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되었고, 현재 수위단은 최상위 교화단임과 동시에 최고의결기관으로써 교단의 통치조직<sup>66)</sup> 중 하나로써 그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편 당시까지는 교화단은 교육(훈련) 통일의 기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시창 13년(1928) 사업보고서」에서는 ‘현하 본회의 위치가 점고(漸固)함을 따라 공부에 발원하는 동지가 다(多)하므로써 공부를 전문하여 교육계가 있게 되었으며 그 교육계를 유지키 위하여 자연중 사업계란 일부분이 출현되었나니, 다수의 동지를 유루없이 훈련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達)코저 하며 이 사업계를 결함없이 확장하여 교육의 영원한 기초를 정(定)코저 하면, 이를 통치(統治)할만한 기관(機關)이 있어야 할 것이며 더우기 다수의 동지자를 종사주(宗師主) 단독히 지도키로 하면 힘이 미치지 못하므로, (중략) 이 단

62)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 부칙, 앞의 책, 67-68쪽.

63) 십인일단의 단위로 단을 조직하여 신앙을 근본으로 이루어진 교단의 통치와 교도의 교화 및 훈련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기하는 방법.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원불교사전』, (이리:원광대학교 출판국, 1981), 431쪽.

64)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 제3장 수위단의 조직급선거방식, 『원불교교고총간 4권』, 앞의 책, 51쪽.

65) 「불법연구회회규」 3장 기관 6절 수위단회, 『원불교교고총간 4권』, 앞의 책, 296쪽.

66) 현재 교단에서는 통치조직을 대표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 감찰기관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이성은, 「조직제도변천사」, 앞의 책, 438쪽.

기관에 분속 통치케 함을 따라 (중략) 원근 각처와 다수 회원을 총 망라하여 본회 공부계와 사업계에 조직적 향상과 통일적 발전성이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단규 원세칙은 ‘교육통일기관의 정관’이라 하였다.<sup>67)</sup>

## 9) 학력고시법의 실시와 『보경 육대요령』

소태산 대종사는 동하선 6개월간의 정기훈련과 교화단회를 통한 상시훈련을 꾸준히 시켜왔지만, 그 훈련 평가에 있어서는 이미 훈련법과 같은 해에 발표된 ‘학력고시법’과 ‘학위등급법’의 적용을 뒤로 미루어 왔다.<sup>68)</sup>

그러다가 점차 교화단이 성숙되고 일기법 등이 정착되면서, 제3회 조단이후 학력고시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원기 15년(1930) 11월 15일경 소태산 대종사는 ‘삼강령 훈련등급’을 제정하여 이후 이로써 학력을 고시하였다. 그 해 제11회 정기훈련(庚午 冬禪)에서 첫 적용한 후, 경성 등 다른 회원들에게도 적용하였다.<sup>69)</sup>

이전까지는 각 선(禪)에서 공부인의 성적을 고시할 때 수양·연구·취사의 삼방면을 합하여 보게 되므로 그 사람의 정도를 철저히 고선(考選)하기가 곤란하였으나, 이후 소태산 대종사는 연구는 ‘교과서 해석’, 수양은 ‘과정 성의’, 취사는 ‘학과 실행’이라 명칭하여 한 사람의 성적을 3방면으로 보게 하였다.<sup>70)</sup>

원기 15년(1930) 9월 12일에는 ‘육명부승급(六名簿昇級) 조항’을 개정하여 연말에 있을 제2회 공부승급(工夫昇級)에 당하여 각자 정도를 헤아려 어떤 부(簿)에든지 자원하도록 하였다.<sup>71)</sup> 그리하여 이듬해 정기총회때 법위(法位)를 발표하니 예비법마상전부에 7인, 정식특신부 54인, 예비특신부 48인 등이었다.

이렇게 창립 초기 제정되었던 법들이 차차 교화단과 훈련이 성숙됨에 따라 그 적용의 빛을 보던 중, 원기 17년(1932) 음력 1월에 교리 전체를 총괄적으로 망라하여 편집된 『보경 육대요령(寶經六大要領)』이 인쇄에 들어가게 되었다. 『육대요령』은 표어와 총론을

67) 「시창 13년도 사업보고서」 교무부, 앞의 책, 59쪽. 이 보고서에는 삼강령의 총론을 밝히고 그 교육(훈련)의 실행을 위한 조건으로써 팔조목과 술성요론, 계문, 재가응용주의사항과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하는 책임조항과 매일 일기 기재법과 유념무념대조법과 종사주의 각종 법설 기재의 건으로하여 재가출가 공부인을 고루 훈련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68) 양건모, 「초기교단의 정기훈련에 대한 고찰」, 앞의 글, 20쪽. 정기훈련이 끝나는 해제식에서 성적 및 순위를 발표하고 소태산 대종사는 직접 성적표를 수여한다. 그러나 그 훈련 평가 방법은 몇 차례 변화를 거듭한다. 그 방식으로 1. 공부점수, 공부일수를 합산하여 성적과 순위를 정하고 있거나(원기 13년 7회, 8회 총부정기훈련), 일기반과 좌선반으로 반을 나누어 한 경우(원기 13년 영광동선), 연습(훈련)성적과 현실성적으로 나눈 경우(원기 14년 제9회 총부하선), 이 경우는 연습성적을 다시 연습(훈련)성적은 글씨를 쓸 수 있는 일기반을 갑반으로, 글씨를 쓸 수 없는 좌선반은 을반으로 다시 나누고, 현실성적은 당면등급과 부당등급으로 나누어 성적을 정한 점을 볼 때, 이때부터 신분검사법이 훈련평가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9) 김기천, 송규, 송도성, 전음광 4인은 연구과목 일기부 甲반과 연구과 정기전문부 乙반에 입격되어 수업증(修業證)을 받았으며, 이후 이공주, 김영신, 조전권(이상 경성), 권동화, 이동진화, 서대원, 박노신 등은 일기부 갑반에 입격하고, 그의 회원 중에도 丁반, 戊반에 합격하여 수업증을 받는다. 일기부 갑반에 오른 사람은 일기부 갑반의 수업증을 득한 자는 일기에 대한 법칙을 교수할 자격이 있고, 정기전문훈련(定期專門訓練)의 법리(法理)에 대하여 교수할 자격이 있다고 한다. 「시창 15년도 사업보고서」 『원불교교고총간 제5권』, 103쪽.

70) 「시창 15년도 사업보고서」 교무부제3회보고서, 앞의 책, 103쪽

71) 「시창 15년도 사업보고서」, 같은 책. 대종사 당시 법위사정은 원기 13년, 16년 두 차례 뿐이며, 이후 20년이 지난 원기 38년 나서 창립 제1대 기념총회에 즈음하여 정산종사가 한 차례 시행한다. 이후 법위사정은 원기 65년 이후 대산종사의 ‘교도법위향상운동’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면서 현재는 매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고 있다.

밝히고, 그 내용을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 공부의 요도 삼강령 팔조목, 정기와 상시의 훈련편, 수양과 연구과 취사과의 단계별 훈련평가법인 학력고시편,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공부인의 수행정도를 6가지로 밝히고 있는 학위등급편, 그리고 본회 창립을 위한 사업을 권장하도록 사업고시편 등이었다.

『육대요령』이 발행된 이후에도 더욱 보완되고 수정되었으며, 원기 19년(1934) ‘예비학력고시법(豫備學力考試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도 하였다.<sup>72)</sup> ‘예비학력고시법’은 『육대요령』내 그 원칙이 있으나 그보다 더 정확한 실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에서는 수양과, 연구과, 취사과의 3과(科) 전부의 허가를 얻은 자는 법강항마부에 승급하도록 하여 학력고시의 결과가 곧바로 법위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실제로 원기 18년(1933) 동선부터 원기 24년(1939) 동선까지 정기훈련기간 동안 3과의 성적 평가에 ‘예비학력고시법’이 적용되기도 하였다.<sup>73)</sup>

이처럼 『통치조단규약』과 『육대요령』의 발간과 네차례의 조단을 거치면서 불법연구회 시대의 이단치교와 법치교단의 실현을 위한 시도가 일단락되었다.

## 2. 단회의 주요활동

불법연구회시대의 단회의 활동을 크게 4가지 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단에 대한 교육이다. 이는 주로 「단규」에 대한 강습이나 음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는 농업부창립과 인재양성소창립 활동이다. 이 양 연합단의 활동은 그 취지 설명과 단금 수합으로 이루어진다. 셋째는 의견안에 대한 처리로 의견안의 제출과 심의, 그리고 실제 적용 과정에 이르는 활동이다. 넷째는 일기를 통한 단원의 훈련으로 이는 단장이 단원들의 일기성적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1) 단규강습

대중사는 십인일단의 단법을 진행할 때, 교화단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원기 13년(1928) 음력 7월 26일, 「신단규」가 예회때 공표된 이후, 매월 음력 16일 오후에 있던 단회(團會)를 오전까지 확장시켜 진행하여 오전부는 단규강습에 할애하고 있다. 마침 제7회 정기훈련 때였는데 당시 저녁마다 진행중이던 강연회를 임시 중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단규강습 및 단원매일성적조사에 관한 간담(懇談)으로 매일 저녁 상황을 이루었으며, 1시간의 간담은 너무 짧다하여 8시 30분에서 10시까지 1시간 반으로 저녁 간담회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sup>74)</sup>

단규강습은 음력 8월 16일 단회때 처음 보인다. 이날 오전 예회때 개정된 단규에 대한

72) 「회보 제8호」 예비학력고시법, 앞의 책, 87-89쪽.

73) 구태원 이공주 종사 유품 자료, 「정기전문훈련성적표」(문화부 제공), 소태산 대중사 재세시에는 이후 범위사정이 따로이 실시되지는 않고 있다.

74) 「월말통신 제8호」 본관의 근황, 앞의 책, 48쪽

낭독설명이 있는 후, 오후 2시에 단원들은 금강원 제2호실에 집합하여 1인은 단장으로, 3·4인은 단원을 가정(假定)하여 단회 의식에 따라 직접 실습하고 문답을 하여 이해를 얻기도 하였다.

음력 10월 16일부터 오전·오후로 단회를 실시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단규강습이 실시되며, 매월 단회때마다 2·3인의 연사가 등장하고 있다.

단규강습은 단규낭독과 그 의지 설명, 문답 등으로 진행되는데,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대중이 직접 강연의 형식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sup>75)</sup> 그 방식에 있어서 간혹 음강조사(音講調査)<sup>76)</sup>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강연한 내용을 대체로 정리하면, ① 단규원세칙, ② 단원성적조사법 및 단장매월성적조사법, ③ 단원주의사항, 단장단원의 의무, ④ 단원 매일일기기재법, 재가응용주의사항 6조,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하는 책임 6조, 의견체출, 30계문, 혜시혜수 등, ⑤ 단의 원리, 단 조직의 의의, 사업성적부채표 방식, 본회창립요론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sup>77)</sup>

강연자로 송도성, 전음광, 송만경, 김기천, 송규 등이 자주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이후 「통치조단규약」의 편찬에 참여하거나 향단장 등을 맡는 등 단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2) 농업부창립연합단 및 인재양성소창립연합단 활동 전개

양 창립단의 취지서가 발표된 것은 원기 13년(1928) 5월인 바, 먼저 농업부창립연합단의 취지서를 보면, “본 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은 연구하기를 놓치말며 근무하기를 놓지 아니하여 밖으로 본회의 사업을 세우고 안으로 도덕의 정신을 밝혀 우리 무산대중의 근거가 되어 원만한 사업을 성취”할 것을 주장하여 영육쌍전, 이사병행의 실현과 무산대중의 교육을 위한 기구의 발족과 창설에 그 취지를 두고 있고, 인재양성소창립연합단의 취지서를 보면, 인재양성을 목적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기구의 발족과 창설에 그 취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부창립연합단’과 ‘인재양성소창립연합단’은 제1대 2회의 시작되는 시점인 원기 13년(1923) 4월에 발족하게 되었다. 이후 차차 모든 교화단이 양 사업에 동참하여, 제2회 조단이 있는 후는 모든 교화단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후 『통치조단규약』에 따른 네번째 조단에서 ‘인재양성단’과 ‘농업부창립단’ 양 단도 남녀를 나누어 남녀 대표를 추첨하여 남자 인재양성소창립단, 여자 인재양성소창립단으로 나누게 되었다.<sup>78)</sup> 이후 원기 18년 3월 제5회 정기총회에서 인재양성부가 증설되고, 이듬해 개정된 『불법연구회규약』에서 산업부와 육영부로 신설되면서, 남자육영단, 여자육영단으로 이어져 계속해서 교화단의 중요사업이 되었다.

이 시기의 양 연합단의 창립을 위한 무척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자금 마련을 위

75) 방길튼, 앞의 글, 10쪽

76) 실제 단원일기성적조사표나 정기전문훈련부성적표 등을 보면 교과서에 대한 음강을 점검하는 란이 있다.

77) 방길튼, 위의 글, 11쪽.

78) 「시창 16년도 사업보고서」, 앞의 책, 112쪽

한 의견제출<sup>79)</sup>과 진행방침에 관한 토의<sup>80)</sup>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단회에서는 양 창립단의 ‘취지서 낭독’을 실시<sup>81)</sup>하여 그 사업을 진작시켜 주었다. 단회 시간에 ‘단금 수합’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육영부가 설립된 이후에도 ‘육영금 수합’이란 이름으로 계속되었고, 자금 마련이 어느 정도 되자 ‘수시양성금(隨時養成金)<sup>82)</sup>’을 마련하여 초창기 젊은 인재들의 학비를 지급<sup>83)</sup>하는 데 사용되었다.

### 3) 의견제출 및 심의

의견제출은 공부인이 현재의 상황을 살펴서 그 전에 있던 불합리한 일을 변경하여 합리하도록 하자든지 없어서 불편리한 일을 새로 시설하여 편리하도록 하자든지 어떠한 경우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인 바 그 제출하는 목표로는 세 방면이 있으니, 공부방면·사업방면·생활방면이다.<sup>84)</sup> 공부방면은 도량상규예법, 마음공부장려책 등, 사업방면은 교단유지 및 운영의 제도화 등, 생활방면은 의식주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sup>85)</sup>

의견제출은 원기 11년(1926) 음력 7월 26일에 시작<sup>86)</sup>되어 꾸준히 실시되는 단회의 주요사항이다. 제출된 의견은 매월 단회 때 대중의 토론을 거쳐서 중법사의 감정을 받고 그 의견이 가결되는 때는 연구부에 접수되어 불법연구회의 세칙이 된다.<sup>87)</sup>

그 평가방법은 갑(甲)은 대중전체의 공인을 얻어 즉시 채용된 자, 을(乙)은 반수 이상의 인정을 얻어 채용된 자, 병(丙)은 채용은 못 되었어도 찬동을 얻은 자, 정(丁)은 인정을 얻지 못했어도 의견은 가가(可佳)한 자, 무(戊)는 이해(利害)가 따로이 없는 자, 불(不)은 의견을 제출치 못한 자<sup>88)</sup>등으로 하였으며, 시급상황, 중요성, 불법연구회의 경제형편 등을 고려하여 소태산 대중사가 직접 감정하였다. 그러다가 원기 14년 이후로는 의견을 접수하였다가 실행여부에 따라 실행된 것은 갑종, 방금 실행도중에 있는 것은 을종, 조건부로 보류된 것은 병종으로 분류하였다.<sup>89)</sup>

원기 17년(1932) 4월 이전에는 단원이 의견을 제출하여 상단(上團)의 심의를 거쳐 정식 입법으로 간주될 때는 따로 감찰위원 1인을 선정하여 그 실행을 장려하였으나, 감찰위

79) 단금징수안(이성각), 생지황재배안(송규), 사업창립건성방법안(김기천), 생강을 얼마동안 매장하였다가 춘농기에 방매하자는 안(김남천), 양잠의 수수료를 단금으로 납입하자는 안(이동진화)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공동작농(조갑중), 공동양잠(이청춘), 임원의 공동작농(임원회) 등을 시작하기도 한다. 방길튼, 위의 글, 13쪽, 부록 <표4. 불법연구회시대 의견모음> 참조.

80) 「월말통신 4호」 양 연합단의 진행방침 토의, 앞의 책, 24쪽.

81) 원기 14년(1929) 음력 2월 16일에서 부터 실시된다.

82) 자금 마련 방식으로 10년한도로 1만원 이상을 초월할 때에만 그利息으로써 인재양성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본회의 사업형편상 인제가 대단히 급한 상황이라 그 목적과 제도가 오히려 더디므로, ‘수시양성금’을 두어 인재양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창15년도 사업보고서」, 앞의 책, 111쪽.

83) 학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김영신, 조전권, 박길진, 박길주 등이다. 「시창 15년도 사업보고서」, 앞의 책, 122쪽.

84) 「시창13년도사업보고서」 의견제출상황, 『원불교고고총간 제5권』, 앞의 책, 69쪽

85) 방길튼, 앞의 글, 17쪽.

86) 「월보38호」 의견총수발표, 『원불교고고총간 제1권』, 앞의 책, 349쪽

87) 「시창13년도사업보고서」 의견제출상황, 『원불교고고총간 제5권』, 앞의 책, 69쪽

88) 「월말통신 2호」 단원조사법상시, 앞의 책, 12쪽.

89) 「시창14년도사업보고서」, 의견안제출상황, 앞의 책, 92쪽.

원 한 사람으로는 그 많은 의견을 다 실행할 수 없으므로, 4월 이후로는 그때까지 접수된 의견을 수집하여 공부·사업·생활의 3방면으로 각각 번호와 종합번호를 매겨, 의견의 성질을 따라 본회 상무기관으로 넘겨서 실행케하고 따로 감찰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해당 지방 주요책임자가 그 실행 가부를 항상 감찰하게 되었다.<sup>90)</sup>

당시 단회(團會)에 참여인원이 처음엔 40명에서 50명 정도였는데 의견제출을 하도록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의견은 모두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며, 구두 의견이 간혹 있을 따름이었다. 그리고 일단 제출된 의견은 상단(上團)의 심의를 거쳐서 공의로 채택이 되면, 더 나아가서는 불법연구회의 세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는 조단법과 훈련법을 끊임없이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여러 제자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서로 문답하고 직접 의견을 제출하여 그것을 서로 토론하여 대중적 공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이는 조직과 법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원불교 공사(公事) 문화의 전통이자 그 전통속에서 공화제도(共和制度)를 실천했던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모든 단원들은 이처럼 단회를 통한 의견제출을 통하여 공동체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이후 급박하고 험난한 시국속에서도 일심합력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저력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 4) 단원일기성적조사법과 상시훈련

소태산 대종사는 재가 출가를 물론하고 상시훈련을 고루 시키기 위하여 매일 일기법<sup>91)</sup>을 제정하고 있다. 이는 단원 각자로 하여금 상시훈련 성적을 매일 일기표에 기재하여 자기가 자기 공부의 선불선을 알게 하며 자기가 자기의 공부심을 스스로 권면하게 하는 것으로서 문자와 서식을 대략 이해하는 단원에게 시행하는 법이다. 또는 문자와 서식은 모르고 숫자만 아는 회원이라도 상시훈련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념·무념대조법을 제정하였다.<sup>92)</sup>

또한 이후 원기 18년(1933)에는 ‘간이일기법(簡易日記法)’<sup>93)</sup>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일기를 정식일기(正式日記)라 하여, 정식일기, 간이일기, 유념·무념대조, 태조사(太調査) 등 4종일기법을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다양한 상시일기법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재가출가 유무식의 모든 단원들의 자신의 처지와 정도에 따라 상시훈련을 받도록 하려는 배려였다.<sup>94)</sup> 당시 전문 입선을 통하여 정기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많은 회원은 정기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그런 단원들에게는 예회(例會)만을 참여해도 한 달에 세

90) 「시창17년도사업보고서」, 앞의 책, 121쪽

91) 원불교 일기법에는 정기일기법과 상시일기법이 있는데, 당시 정기훈련 11과목에 정기일기가 작업취사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상시일기는 상시훈련을 점검하는 조사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상시일기가 처음엔 11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단원일기조사법은 상시일기법의 일종으로 이후 간이일기법이 유무념대조법을 포함하여 상시일기법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상시일기는 정기훈련의 한 과목으로 포함된다. 「정전」, 『원불교전서』, 앞의 책, 56-57쪽.

92)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 세칙 1장 1절 1조, 『원불교교고총간 제4권』, 58쪽.

93) 간이일기법은 원기 18년(1933)에 제정된다. 「원불교교사」 2편 3장 3절, 앞의 책, 1085쪽.

94) 「회보 50호, 사중일기법시행에 대하여」, 앞의 책, 306쪽. 회보에 각 지방별 일기시행 결과를 공고하였다. 당시 10년간 꾸준히 일기를 기재한 사람으로 이공주, 전음광, 박사사회, 권동화이며, 이중 이공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실행하고 있다.

번씩 1년에 36일 정기훈련을 한 셈이라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그 공부를 놓지 않도록 해주었으며, 일기조사법을 통해서도 단원들의 삼학 병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단원에 대한 일기성적조사는 단회의 주요 활동이었으며, 매월 16일 1회씩 단원의 성적을 조사하여 단장이 있는 단은 단장이, 단장이 없는 단은 중앙이 대리로 조사하여 매년 음력 12월 26일 교무부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그 성적을 사업보고서에 발표하였다. 체계적인 단원의 일기조사법이 실행된 것은 「신단규」가 제정된 원기 13년(1928) 10월 이후부터라 하겠다.<sup>95)</sup>

단원매일일기조사법의 항목은 크게 공부성적과 사업성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공부성적으로 염불좌선·교과서연습·취사실행, 사업성적으로 정신근고·육신근고·전곡혜시, 그리고 의견제출 등으로 되어 있었다.<sup>96)</sup> 단원들의 공부와 사업을 함께 조사하고 있으며, 공부성적도 수양·연구·취사의 삼학을 병진하고 있으며, 별도로 의견제출을 두고 있으나 이는 또한 공부성적(취사실행)과 사업성적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후 원기 15년(1930) 9월 25일 이후 ‘삼강령 훈련등급’으로써 ‘연구과 일기부’에 대한 학력고시를 실시하여 일기법의 의지와 기재방식의 숙지 정도를 따라 5반을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소태산 대종사는 이후 일기부 갑반(甲班)에 승급한 사람만 성적을 발표하게 하였다. 일기부 갑반에 올라 수업증을 받은 자는 일기에 대한 법칙을 교수할 자격<sup>97)</sup>이 부여되었다. 이것은 바로 단장의 주요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의미하였다. 이 시기에 차츰 직접 단원들을 지도할 수 있는 단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정기훈련과 그 결과를 고시하는 학력고시를 통하여 교화단법에 대한 이해와 그 법의 실제 적용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자격이 부여하도록 한 것이었다.

### 3. 원기 20년(1935)이후 교화단

원기 20년(1935) 이후 교화단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고 이를 바탕으로 교세도 차츰 불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모임에 일제의 간섭과 시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대종사는 불법연구회시대 전반기에 그동안 직접 실시했던 조단 업무를 「통치조단규약」에서 명시된 바 ‘조직위원회’에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스스로는 일제의 탄압을 슬기롭게 대처해 가며, 닥쳐올 열반을 의식하고 교화단 조직과 훈련을 일원상의 진리에 그 바탕을 두도록 하여 그 진리적·신앙적 근거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 한편, 교리

95) 10월 29일 경성출장소에서 먼저 실행한 기록이 있으며, 11월 21일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으나, 공식적으로 11월 27일(음 10월 16일) 단회에 단원매일조사법실행 결제를 시작한다. 「월말통신 제7호」 광고, 『원불교교초총간 제1권』, 앞의 책, 44쪽.

96) 「통치조단규약」에 ‘단원매일매일성적조사표(이하 단원조사표)’과 ‘단원매년매월성적조사표(이하 단장조사표)’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은 사종일기법에서 볼 때, 정식일기의 내용과 같으나, 간이일기에서는 사업성적이나 의견제출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구타원 이공주 종사 보관 자료, 양식: 단원매월성적조사표(간이일기), (문화부 제공)

97) 「시창 15년도 사업보고서」 『원불교교초총간 제5권』, 103쪽. 연구과 일기부는 5과정 중 5과는 단규원세칙의 의지를 해석하고 단장 조사방식에 능한 자로 정하고 있다. 「육대요령」 제4장 학력고시편, 『원불교교초총간 제4권』, 88쪽.

와 제도를 더욱 완비하였고, 그에 따른 출가·재가의 제자들의 교육과 훈련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 1) 일제의 탄압과 교세의 증가

원기 20년 여름 민족지도자 도산 안창호가 불법연구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급기야 이듬해 10월 익산총부 구내에 북일주재소가 생기고 두명의 순사가 파견되었다.<sup>98)</sup> 이후 백백교 사건이 일어나 사회에 여론화되자, 이를 기회로 조선의 모든 신흥종교를 일괄적으로 유사종교로 단정하고 해산시킬 것을 정책적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내사를 하게 되었다.<sup>99)</sup> 일제의 종교탄압은 각 지부의 교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활발하게 전개하던 교화단도 차츰 드러나는 조직 활동을 자제하게 된다.

오전·오후로 진행되던 단회도 거의 오전만으로 진행<sup>100)</sup>되고, 예회 순서엔 국민의례(황국식민서사)를 강제 편입시키고, 모든 의식 수입은 국방에 헌금하도록 강요하였다. 동하 선기와 예회횟수를 감축시켜 일어 보급과 근로 작업에 동원시켰고, 더러는 교당을 그들의 소위 연성도장으로 임의 사용하였다.<sup>101)</sup>

하지만 십인일단 단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이 시기에도 교화는 침체되지 않고 있었으며, 교화단도 꾸준히 유지되었다. 원기 21년(1936) 교무부에 연원부를 두어 매인 아래 9인 이상을 인도하여 입교하게 하자는 연원 의무 실행을 적극 권장<sup>102)</sup>하였으며, 계속해서 회원은 불어나서 원기 25년(1940) 회원은 특별회원 871, 통상회원 5,083, 총 5,954명이었고<sup>103)</sup>, 원기 27년 8,867명(남 2,490, 여 6,277), 원기 28년 9,864명(남 2,790, 여 7,074) 등 매년 1,000여 명씩 회원이 증가하고 있었다. 대중사 열반 후인 원기 29년에도 11,276명(남 3,247, 여 8,039), 원기 30년에도 13,246명(남 4,045, 여 9,201)에도 그 증가는 계속되었다. 또한 계속해서 상시훈련이 실시되었고 그 실시상황이 교무부에 보고 되었으며, 원기 25년(1940)부터는 매년 각 지방단(團)성적표도 보고 되었다.<sup>104)</sup>

## 2) 최종 『회규』와 교화단

교단의 양적인 증가와 아울러 당시 사회에 수행해야 할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훈련의 분화 현상이 시작되었다.<sup>105)</sup> 차츰 지방에 근무하는 교역자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새롭게 체계화된 교리와 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기 23년

98) 박용덕, 『원불교초기교단사 5권:천하농판』, 앞의 책, 220-225쪽. 이듬해(1937) 백백교 사건이 사회에 여론화되자, 일제는 이 기회로 조선의 모든 신흥종교 단체를 일괄적으로 유사종교로 단정하고 해산시키고자 하였다. 이때부터 불법연구회에 대한 본격적인 내사가 진행된다.

99) 위의 책, 227쪽.

100) 원기 22년(1937) 4월(회보 35호)부터 예회를 주로 오전에 마치게 된다.

101) 「원불교교사」 2편 4장 1절, 앞의 책, 1093쪽.

102) 「원불교교사」 2편 3장 4절, 앞의 책, 1088쪽.

103) 「시창25년도 사업보고서」, 앞의 책, 145쪽.

104) 「시창 25년도-30년도 사업보고서」, 앞의 책. 「시창 26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의무교화단(義務教化團)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05) 이성택, 「훈련사」, 『원불교70년정신사』, 앞의 책, 504쪽.

(1938) 12월 2일부터 40일간 제1회 교무강습회를 열어 25일은 교리강습, 12일은 제도강습, 3일은 간담회를 열었다.<sup>106)</sup>

아울러 총부와 거리가 초원하여 매년 입선이 용이치 아니하고 또 지방 선원도 설치되지 못할 곳에 한하여 매년 1·2차식 단기간으로 교리강습회를 개최하고 지방 요인을 회합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 원기 25년(1940)이후 교리 강습회가 실시되었다.<sup>107)</sup>

이후 원기 27년(1942) 이후 단기선(短期禪)으로 대치되었다.<sup>108)</sup>

한편 원기 27년(1942)엔 불법연구회시대 최종 『회규』를 채택 시행하였다. 여기에 수위 단회를 중법사를 보좌하는 최고 기관으로 하고 중법사가 본회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일로 인정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했으며<sup>109)</sup>, ‘교화단’의 목적과 조단방법, 단원 및 단장의 권리와 의무, 회의 등을 규정<sup>110)</sup>하였다. 초기교서에서는 『회규』에 ‘교화단’이란 명칭이 최초로 등장하고 있다.<sup>111)</sup> 한편 『회규』에는 학력고시와 그에 따른 법위에 대한 규정<sup>112)</sup>이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어찌되었든 『불법연구회규약』과 『통치조단규약』의 내용이 『회규』에서 함께 엮여지고 있다.

이로써 소태산 대종사는 재세 28년간의 일체생명을 구원할 제생의세의 큰 서원을 실현하기 위한 과란만장했던 생애를 마감하고 그의 경륜과 포부의 실현 장이었던 십인일단의 교화단 조직과 일생을 통해서 훈련시켜 왔던 제자 단원들을 뒤로 한 채, 원기 28년(1943) 6월 1일 거연히 열반에 들었다.

정산종사의 중법사 취임 후에 패전의 빛이 날로 짙어가는 일제의 노골적인 탄압과 수탈로 모든 법회는 집회계를 제출하여 임석 경관의 설교 감청을 받아야 했으며, 국방헌금과 근로 동원이 가중되고, 산업부의 작물은 강제 공출되어 총부 대중의 식량 사정이 절박해 졌고, 징병 징용 훈련 등으로 남자 청년 임원들은 집단생활이 어렵게 되어, 산업대라는 이름으로 분산되고 여자 청년 임원들도 정신대를 면하기 위하여 사무요원을 제하고는 공장 혹은 병원에 분산 취업하였다. 그럼에도 원기 30년(1945) 교화단 조직을 위협시하여 이를 금지하기에 이른다.<sup>113)</sup>

이후 교화단 활동이 해방 후 혼란한 정국과 건국사업,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차츰 조직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그 원형을 잃어가고 말았다. 다만 수위단의 위상과 직능이 강화되고 역대 중법사의 경륜을 통해 이단치교와 법치교단의 명맥을 유지하여 오다가 최근 출가교화단 등이 결성되면서 다시금 원불교 교화의 사활이 달린

106) 양건모, 앞의 글, 22쪽.

107) 이전에도 원기 21년(1936) 소태산 대종사의 지방(경성, 남부민, 초량, 영광 등) 순회때 교리강습회가 이루어진다. 양건모, 앞의 글, 23쪽.

108) 일제의 탄압이 노골화 되면서 ‘생산증산의 의에에 副하기 위하여 예회횟수와 선기단축을 감행하고 가급적 농한기를 이용하여 지방단기선을 장려’하고 있다. 「시창 27년도 사업보고서」, 앞의 책, 155쪽.

109) 「불법연구회회규」 3장 기관 6절 수위단회, 앞의 책, 296쪽.

110) 「불법연구회회규」 5장 회원 4절 교화단, 앞의 책, 300-301쪽.

111) 교화단이란 명칭은 원기26년경에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단이 결사비밀조직의 측면이 없지 않아 아마도 일제의 감시와 경계가 있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통치조단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불교의 일반용어인 ‘교화(教化)’의 의미를 직접 명시하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이 교화단마저도 대종사 열반후인 1945년에 일제에 의하여 위협시되고 금지되기에 이른다.

112) 「불법연구회회규」 6장 행해법계(行解法階), 앞의 책, 296쪽.

113) 「원불교교사」 2편 5장 1절, 앞의 책, 1101-1102쪽.

새로운 대안으로 그 빛을 보기에 이른다.

### Ⅲ. 나가며 - 미래 교화단에 대한 단상

그동안 불법연구회 단조직의 변천과정과 주요활동을 통해서 대중사가 구상했던 단교화의 일단을 볼 수 있었다. 최대한 대중사가 그렸던 그림을 복원해보고자 퍼즐맞추기와 같은 작업을 해온 셈이다. 이에 바탕하여 미래교화단에 대한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자. 서툰 그림이지만 일부는 이미 제법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벌써 실현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이 한 개인의 그림이 아니라 우리의 그림이 되고, 미래 교단과 세상에 대한 그림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래교화단에 대한 단상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 1) 첫째는 수위단을 중심으로 한 단중심 체제로 전환하자.

##### (1) 단을 통해 원불교인이라는 통일성과 정체성을 갖도록 하자.

수위단을 비롯하여 교화단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여 교정원을 비롯한 다른 행정부서 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단 구성원의 정체성을 단에 두자는 것이다. 즉 선교화단 후교당(혹은 기관, 부서), 선단원 후직위로 선후와 본말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각자를 소개할 때에도 어느 교당, 어느 부서 누구이기 이전에 ‘무슨 단 누구인데, 00부서에서 000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라는 방식이다. ‘교화단은 가족’이라는 구호처럼 일종의 ‘공동가족’과 같은 역할로 교단 구성원의 삶의 근원이 되게 하자.

##### (2) 수위단이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자.

원불교 역사상 최초의 조직으로 시방세계를 응하여 조직되었다는 상징적 위상과 함께 교단의 열이요 최고의결기간으로서 실질적 위상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 수위단이 모든 출가재가의 대표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공부와 사업, 그리고 교화와 통치(문답감정에서부터 공부사업의 지도감독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유연한 의미로 봄)의 명실상부한 구심이 되게 하자.

##### (3) 수위단원의 구성도 남녀 평등뿐만 아니라 재가·출가도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자.

그러하여 명실상부 재가·출가의 구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비수위단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비수위단체는 일정한 자격(법위나 교단 활동 경력, 실제로 단원 지도의 경험 및 자격을 얻은 자로서 법위나 교단 경력이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자로

예비수위단 인재풀을 만들어 스스로도 미리 준비하게 하고 교단 구성원들도 몰라서 못 뽑는 일이 없도록 미리 공지하되 3년(혹은 6년)간 대기사가 없고 대중의 신망이 있는 자라면 괜찮을 것이다.

#### **(4) 출가단과 재가단을 동등하게 두자.**

초기에도 전무출신단과 거진출진단이 구성되어 있었다. 향후 재가단장들도 교단 요직을 겸할 수 있도록 출발부터 출가자만이 아니라 재가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가의 경우 지역사회나 특정분야에 한정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 역량이 커지면 한 지역이나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도 원광대학교, 원음방송 등 교단의 중요 기관에서 재가자를 상급자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단에서도 재가자가 교화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초기교단에서는 재가출가의 구분없이 누구나 자신의 처지와 발원에 따라 회상 건설에 참여할 수 있었다. 출가자 중심이 되어 있는 교단운영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재가 원장, 재가 부장, 재가 수위단원, 재가 중법사까지도 불가능하지 않다.

#### **(5) 끝까지 책임지고 불공하는 단이 되게 하자.**

수위단은 전체를 책임지고, 단은 맡은 지역이나 분야를 책임지고, 단장은 단원을 책임지자. 책임이 없는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교당이나 기관에서 아래위 동지들간에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을 접할 때가 많다. 대부분 일단 단원을 받으면 그 단원의 대소사를 책임져주어야 한다. 단원의 어려움을 열 사람이 협력하여 해결해가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다면 불공이 될 수가 없다. 마음에 안들면 바꾸고, 싫으면 떠나고 만다면 어떻게 끝까지 불공할 수 있을까? 먼저 단장을 찾고 단원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교화단이 가족이 된다면 그것은 미룰 수 없는 1차적인 책임을 전제해야 한다. 나아가 단이 맡은 지역이나 분야를 완전히 책임져야 한다. 지역사회에 호흡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불공하지 않는 단은 살아남을 수 없다. 단원들이 살아나면 그 단원들로 인하여 그 지역, 그 분야가 살아날 것이다.

## **2) 둘째로 의견제출을 통한 공화제도를 확립하자.**

### **(1) 어떤 의견이라도 공사로 해결하는 풍토를 만들자.**

아무리 작은 의견이라도 그것이 공중사에 도움이 되도록 에너지를 모아가자. 어떤 의견안(창안)이 제시되면, 그것을 모두 소중히 받아서 공중의 지적 재산이 되게 하자. 사안에 따라서 하위단이나 지구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수위단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이다. 수위단 전체가 나선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단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일단 단에 제출된 의견안은 더 이상 사사(私事)로

운 것이 아니다. 모두 공사(公事)가 되고, 그것이 곧 공중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 등을 작은 문제라고 외면하기 보다는 어떤 문제든지 지역이나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의사소통이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사통오달이 되도록 교단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일차적으로 교화단에서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 (2) 일단 제안된 의견은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자.

개인의 소중한 의견안이 혹 폐기가 되든, 수정보완이 되든, 정식채택이 되든, 그 의견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그 위치나 현재상황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작지만 소중한 의견이 교단의 곳곳에 스며들어 가는 모습을 직접 단원들이 확인하여 이 회상의 창립에 내가 한 몫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스스로 보람과 긍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은 교단의 구성원들 모두를 교단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공화제도의 실현이다. 대종사는 당시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의견제출을 적극 권장하고 교단 창립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것도 거의 모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책임있는 의견 창안자가 되게 하였다. 채택되면 불법연구회의 세척이 되기도 하고, 총회 등을 거쳐 다음 회기 중요사업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이는 다수결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보다도 더 앞선 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현 민주주의의 다수결 제도는 항상 소수의 의견이 소외될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의제는 대표를 뽑아 대신하는 것이기에 역시 그 한계가 있다. 물론 효율성의 측면에서 모두를 설득하고 모두의 의견을 다 듣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과연 앞으로의 시대에서도 이런 방식의 정치제도가 그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화단의 의견제출 제도는 참으로 미래를 내다본 혜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모두를 성공시키는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지만 제도란 일단 정착되면 그 사람까지도 그 제도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만큼 일정한 제도가 사람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다.

## 3) 셋째 교당중심교화에서 단중심교화로 전화하자.

### (1) 교당중심이 아닌 지역중심, 사람중심의 교화가 되게 하자. 공급자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교화!

수위단의 8인 단원이 각각 8방의 교주라고 하셨다. 8방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재의 교구-지구-교당으로 이어지는 교화체제를 수위단-지구단..... 최하위교화단으로 이어지는 교화체제로 변환하자. 교화의 단위를 지구단위로 끌어올리자. 그리고 그 지역이나 지구교화의 최종 세포가 바로 일종의 풀뿌리 교화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구단위로 하게 되면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교화단을 중심으로 한 교화체제가 가능해진다. 그것은 ‘교당중심에서 교화단 중심으로’ 가는 교화패러다임의 전환에

아주 중요한 현실적 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흔히 우려하는 교당이 통폐합되어 줄어들다는 관점보다는 작은 교당, 즉 교화단이 확산된다는 개념으로 보자. 그리고 교당이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열린 교당으로 지역사회에 닫힌 교당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 교화를 열어가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 (2) 교화단이 자리잡고 차차 교당(센터)가 들어가게 하자.

이처럼 교화단위가 지구교당 중심으로 재편되면 교당을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여러 소모임과 같은 교화단이 먼저 형성되고 그것이 일정한 규모가 되었을 때 거기에 걸 맞는 지역중심의 교화단(=지구단)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선교당 후교화단이 아니라 선교화단 후교당이 되는 것이다. 현재 1단도 안 되는 영세교당이 있다면 작은 교당을 하나의 교화단으로 봐도 무방하다. 다만 교무를 파견하여 상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화단 출장법회를 보는 방식으로 곳곳에 단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도움이 없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 (3) 지역주심과 연원중심이 잘 조화되게 하자.

이렇게 되면 교화에 있어서 지역중심과 연원중심(인적교화체계)이 잘 조화될 수 있는 길이 함께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예의 하나로 동학의 포와 접의 경우도 포는 일정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고 접은 접주를 중심으로 한 인적 구조였다고 한다. 대종사도 교화단을 구성할 때 인적 중심으로 할 것인가 지역중심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셨는데, 실제로도 익산지부, 경성지부, 전주지부 등 일정 지부별로 단을 구성하여 운영했던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교화단이 교당이라는 틀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해진다.

다른 지역에서 이동해온 단원들도 이전 연원이 새 단장에게 인수인계를 절차에 맞게 해주도록 하자. 그래서 부산지구 단원이 안양지구로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도 이동하게 하여 타 지구에서 멀리 다니는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줄이자. 즉 교당중심교화에서 지역(지구)중심교화로 나아가자. 많은 이들이 한 번 다닌 교당을 평생 다니겠지만 혹 지역을 이동하게 될 경우 새로운 지역과 호흡하도록 적극 지원하자. 자신의 지역의 문제로 함께 공부하고 사업하는 풍토가 되게 하자.

## (4) 풀뿌리 교화로 교화의 저변을 넓히자.

예전에 대학 동아리 활동 할 때를 돌아보면, 동아리 구성원들이 매일 아침 독경에서부터 저녁에 대중경봉독 및 여름, 겨울 훈련 등, 물론 학내외 교화 및 봉사활동 등을 해내면서 매주 목요일 법회때는 가까운 지역 교무님을 모시고 법회를 보았다. 모든 진행은 동아리 구성원이 스스로 하였다. 이것이 외형만 교당의 틀 밖에 있지 일정 정도 교당의 역할을 충분히 한 것으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된 예라 할 것이다. 그 외에 각종 학생 CA 및 군부대, 다문화가족 등 풀뿌리 교화단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교무들이 지역교화센터에 근거하면서 지역의 각 학교나 직장, 마을센터 등에 출장법회도 가능하다. 교당에만 와서 보는 법회와는 달리 그 폭이 훨씬 넓고 다양해질 수

있다. 교당내 교화에서부터 교당의 교화까지 교화단에 포함될 수 있다.

#### 4) 넷째 출가단도 한 지구(지역)단위로 구성하자.

##### (1) 맡은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비전과 팀워크를 갖추자.

물론 한 지역에 꼭 한 단만 있으란 법은 없다. 예를 들어 영산지역은 학교와 사무소, 영산교당 등이 한 지역에 밀접되어 있는 복합교화현장이다. 그 경우 지역 출가단이 2-3단이 될 수도 있다. 한 출가단은 한 지역이나 분야를 책임지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우리 지역은 우리 단이 책임지겠다. 일단 단이 구성되면 단원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한다. 첫째는 지역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둘째는 함께 할 단원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약 한 달 정도 자료도 수집하여 컨설팅도 받고 구성원들간의 단합도 꼭 가지자. 단합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닐 것이다. 정기훈련을 함께 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 속에 심리상담까지 포함하여 현장에서 구성원 사이에 불협화음에 빠앗기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도록 하자. 지금처럼 한 명, 두 명이 교당에 흩어져서 고군분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2-3명 있는 교당에서 서로 불협화음이 생겨서 서로 스타일 맞추느라 여러 날을 보내고 급기야 갈라서고 만다면 이미 교화는 물 건너가고 말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적 구조가 아니라 한 지역이나 분야를 교화할 팀워크와 비전을 가진 단이 되어 들어가야 할 것이다.

##### (2) 재가가 주인되고 출가재가가 함께 하는 교화를 하자.

그렇게 되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화도 물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대학이 많은 지역, 군부대와 가까운 지역,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 부유층이 많은 지역, 농촌지역,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등이 기관이 있는 지역, 외국인이 많이 있는 지역, 성지가 있는 지역 등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교화가 가능하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지역을 책임지고 들어갈 출가교화단의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각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재가교도들의 자율적 동참도 중요하게 되며 이 체제는 자연스럽게 재가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 책임 등, 왜냐하면 매일 교무가 동아리방에 앉아있을 수 없고 직장에 출퇴근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기관, 분야, 지역 등에서 직접 교화단을 운영하는 중간 지도자로서의 재가자의 역할이 무척 중요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또 하나의 교화패러다임의 변화인 ‘출가중심에서 재가중심(엄밀히 말하면 재가출가공동교화체)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될 것이다.

#### 5) 다섯째 각 지구·교당을 지역사회의 원불교센터로 가꾸자.

##### (1) 원불교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원불교를 대표하는 공간이 되게 하자.

교화단센터이자, 교육훈련센터, 원불교 문화와 홍보의 중심지가 된다. 뿐만 아니라 힘들 때 가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이자 기도터이고 안식처로 제공된다. 이 문제도 단순히 잘 지어진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건물없는 교회도 있듯이 건물이상으로 하나의 지역에 맞는 공동체였으면 한다. 그 지역민들이 즐겨 찾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곳,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곳, 실제로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 미래의 삶의 대안이 실현되는 현장, 예를 들어 초기 익산지부 출재가가 함께 모여 살던 이상의 공동체. 도심에서는 하나의 단일 건물, 혹은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일종의 ‘원불교의 거리’(一圓타운)가 형성될 정도까지, 지방이나 농촌은 그 마을의 공회당이자 공동체의 모델이 되도록 하자.

한 사람이 교당을 일일이 문단속하고 다녀야 하는 체제에서는 꿈꾸기 힘든 광경이다. 예전 광주교당은 지역 문화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구나 쉬어갈 수 있고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종을 칠 때는 지나가던 이들도 종각까지 올라와서 기도하고 간다. 당시 탁구대만 있어도 청소년들이 몰려왔다. 교당의 아담한 뜰은 연인이나 가족들, 주변의 학원생, 직장인들이 잠시 발길을 멈출 수 있는 곳이었다. 기도를 하고 싶은 데 문이 잠겨 있는 교당은 수속이 복잡하여 명동성당이나 조계사 등에 가서 잠시 쉬었다 왔다는 동지들도 보았다.

## **(2) 지역민의 일상생활문화를 선도하는 공간이 되게 하자.**

각 교화단은 한 달에 한 번 지구센터에서 대법회를 보고, 사축이재, 혹은 천도재 및 관혼상제 등 지구센터에서 열 수 있다. 관혼상제, 출생 전부터 사후까지를 다 책임져주는 문화센터가 되었으면 한다. 종교의례가 일상생활화되도록 지역문화를 선도해가는 문화센터가 되었으면 한다.

## **6) 여섯째, 단교화가 훈련과 연결되도록 하자.**

### **(1) 단을 통해 상시훈련이 살아나도록 하자.**

본래 단의 취지는 상시훈련을 강조한 원불교 교육훈련의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단회를 통해서 상시공부를 지도받도록 하는 곳이다. 그리고 상시공부에서 자신의 부족한 면이 발견되면 예회날에 교당에 와서 공부에 전념하든, 더 나아가 전문입선을 통해서 정기훈련도 받도록 하고 있다. 지구센터가 일단 상시훈련의 점검장이면서 정기훈련의 출발점이 되게 하자.

### **(2) 지구·교당을 단기훈련장이 되도록 하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질의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이 가동되도록 하자. 그러면 단원들은 교당에 마련된 상시프로그램, 아침좌선, 혹은 경전시간, 혹은 선요가시간, 혹은 염불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 교당에서 아침부터 좌선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그 프

로그래를 지역사회, 지역단원들과 함께 하자. 교무나 혹은 일정수준의 재가교도가 한 과목씩, 한 주제씩 맡아 진행하자.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박 2일 단기훈련 등도 물론 교당에서 가능하다. 신입교도 훈련도 지구별로 할 것이다. 처음부터 입교나 교화단에 가입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일정한 기간 훈련 후 단원이 되도록 하자. 단원이 될 때는 정당한 의식절차를 거쳐서 단원증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권리 등을 부여하고 기쁘고 즐겁게 환영하여 맞이하자. 곧 신입교도 입교식이 바로 신입단원이 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 (3) 장기훈련으로 연결되도록 하자.

이렇게 지구교당에서 훈련된 교도들이 여름 겨울을 통해서 정기훈련을 가고자 할 때 각 지역별 (적어도 교구단위) 장기훈련 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기존의 훈련원에서 단기훈련만이 아니라 장기훈련(1주일, 1개월, 3개월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수행이 생활화되고 있다. 전문수행, 전문훈련의 갈증을 직접 한달, 두달, 혹은 몇 년씩 수행처를 찾아 들어가는 이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리고 수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잘 준비된 훈련기관이 각 지역마다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행자들-재가 출가 상관없이-을 맞이할 준비가 과연 얼마나 되어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 (4) 원불교 교화의 원형이 살아나도록 하자.

이상 교화단과 훈련을 대중사님 초기 구상에서도 함께 맞물려 있는 것으로 둘은 대중사님 교화의 원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자리에 교화단을 두셨는데 그것이 ‘교당내왕시주의사항’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은 아닐까. 상시에서 정기로, 정기에서 상시로 연결되는 대중사님의 동과 정이 아우러지는 훈련체제가 비로소 그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설교중심에서 (설교를 포함한) 훈련중심으로’ 교화패러다임이 또한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다.

지난 날 대학시절 도반들과 ‘미래그리기’라는 것을 해보았다. 내가 그린 그림과 주변의 동지들이 그린 그림 조각을 서로 맞추어 갈 때는 밤을 지새워도 피곤한 줄 몰랐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자부심과 긍지, 보람이 함께 했다. 함께 의기투합하여 우리가 직접 그린 그림을 실현키 위해 노력했다. 나는 한 편의 장황한 그림을 그려보았다. 그림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그릴수록 그것이 가지는 실현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서로 그리고 있는 그림을 하나로 맞추어 가보자. 함께 꾸는 꿈, 함께 그리는 그림,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 우리의 자신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 교단의 미래, 그리고 우리 인류의 미래도 결정될 것이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 역시 지금 각자 그리고 있는 그림에 달려 있지 않을까.

## &lt; 참고문헌 &gt;

- 원불교정화사 편, 『圓佛敎全書』, 이리:원불교출판사, 1995
- 원불교정화사 편, 『圓佛敎敎故叢刊 전6권』, 이리:원불교출판사, 1994
- 원불교정화사 편, 『圓佛敎資料叢書 I』, 영인본, 이리 :원불교출판사, 1984
- \_\_\_\_\_, 『圓佛敎七十二年總攬』, 원불교창립제2대 및 대중사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 1991
-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원불교사전』, 이리:원광대학교 출판국, 1981
- 이성은, 「조직제도변천사」, 『圓佛敎七十年精神史』, 원불교창립제2대 및 대중사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 1989
- 이성택, 『원불교 훈련의 이론과 실제』, 이리:동남풍, 1994
- 박용덕, 「薰山遺稿 《山中風景》 研究」, 『원불교사상 제12집』, 원광대출판국, 1988
- 박용덕, 『원불교초기교단사 1권:少太山의 대각, 방언조합운동의 전개』, 원광대출판국, 1997
- 박용덕, 『원불교초기교단사 2권:돌이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익산:원광사, 1997
- 박용덕, 『원불교초기교단사 5권:천하농판』, 익산:동남풍, 1999
- 김성관, 「원불교 법위등급에 관한 연구」, 이리: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 서경전, 「원불교 교화이념 형성의 연구」, 이리: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고원국, 「少太山의 봉래주석시에 대한 연구」, 이리: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방길튼, 「불법연구회시대의 단회에 대한 고찰」, 이리:원광대학교 학위논문 1994
- 양건모, 「초기교단의 정기훈련에 대한 고찰」, 이리:원광대학교 학위논문, 1994
- \_\_\_\_\_, 『예비교역자가 달성해야 할 교육수준』, 법무실, 1999
- 조정중, 「以團治敎에 관한 연구」, 『원광 66호』, 이리:원광사, 1969
- 심도정, 「以團治敎의 문제」, 『원광 66호』, 이리:원광사, 1969
- 수위단회사무처, 「출가교화단보」 1호, 2호, 26호



# ■ 메 모 ■

# ■ 메 모 ■